6.15주간

주체90(2000)년

6.15Weekly 제8호 (8월 9~15일)



한민전중앙위 - 이회창역적의 반통일책동을 규탄하는 성명
통일운동조직들에 공개서한

노작 -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특집 1 - 2001 민족통일대축전

특집 2 - 반이회창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반단특위)

대담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그 의미

발췌 - 조·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김대중정권의 화해·협력정책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 호 (8.9~15)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성명

지금 전국민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정면 반대하면서 반통일적이며 반민중적책동에 미쳐 날뛰는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고 있다.

우리 민중은 칠천만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민족자주선언이고 평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힘과 지혜를 모으며 성과 열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은 민심과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6.15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결사반대하면서 남북간에 냉전 기류를 몰아 오며 반북대결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애당초 자주적 평화통일을 원치 않는 이회창은 지난해 4월 남북최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합의서≫가 발표되자 이를 ≪총선용 신북풍사건≫으로 매도하면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 제동을 건 악질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은 온 민족과 전 인류가 쌍수로 지지환영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의 매 조항에 대해 생트집을 걸면서 ≪국민이 환상에 젖어 있다≫는 심히 쓸개빠진 악담까지 늘어놓았다.

심지어 그는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상호주의≫를 운운하다 못해 ≪퍼주기만 하는 대북협력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 삐뚤어진 소리까지 하며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각방으로 악랄하게 책동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이회창은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반면 휴전선일대를 돌아 치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극악한 호전분자이다.

특히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국민의 의지에 대해 ≪한미관계 손상≫이라고 심히 모독하면서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가 우선≫이라고 떠들며 친미사대매국적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 놓은 이회창은 미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미사일방어체계≫구축책동을 극구 찬양하며 미국의 현지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다.

60년대부터 악질 대법관으로 군사파쇼독재를 뒷받침해 온 이회창은 역사상 최대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의 담당판사로 조용수사장을 사형했으며 우리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화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여 무차별적유혈탄압을 정당화해온 극악무도한 파쇼분자이다.

오늘 이회창은 국민 각계는 물론 국제사회계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반통일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사반대해 나서고 있다.

제반사실은 이회창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분자, 불을 즐기는 호전광,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 극렬한 파쇼분자라는 것을 여지없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도 모르고 통일도 안중에 없이 공동선언과 그 이행을 한사코 가로 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이러한 책동은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정면 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행위이며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편승해 동족과 국민을 죽이려는 잔인한 파쇼광의 친미사대매국행위이다.

오늘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동족의 피도 없는 이회창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도 기대할수 없고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도 바랄수 없으며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격화되어 전쟁으로 치달아 우리 민족이 그 참혹한 희생물로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회창의 체질화되어 있는 반북대결기질과 그를 비호하고 부추겨주고 있는 상전의 대북강경전쟁정책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전국민의 일치한 분노와 의지를 담아 이회창을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흉악한 민족반역자, 극악한 민중의 표적으로 낙인하고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원래 친일주구의 후손인 대통령병자 이회창은 사대매국과 영구분열의 일등공신으로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역적중의 역적으로써 이미전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매장됐어야 할 인간추물이고 악한이다.

대세의 흐름과 민심을 등지고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면서 역대 군사파쇼독재자들을 극구 찬양하며 사회의 파쇼화를 몰아오기 위한 대권쟁탈에 환장이 되어 있는 이회창역적의 죄악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는 현시기 반북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이회창과 같은 극악한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겨레와 민중의 재앙인 이회창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한국민의 수치이며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을 한사코 반대하며 피비린 민중탄압에 적극 가담하여 악명을 떨쳐온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 세우는 것만이 민주화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는 지름길이며 자주화되고 통일된 새조국을 건설하는 바른길이다.

전국민은 민족사의 부름과 요청에 화답하여 반이회창구호를 높이 치켜 들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총 분기해야 한다.

각계각층 민중은 이회창의 흉악한 정체를 꿰뚫어 보고 그 더러운 집권 기도를 분쇄하며 민족의 치욕을 덧쌓기전에 그를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해 버리고 국민심판대우에 올려 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것이다.

이회창은 이땅의 민심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애국민중과 어깨 겯고 발걸음을 맞추며 하나의 목소리로 반이회창투쟁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그를 역사의 시궁창 속에 매장하고 겨레의 간절한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의 영광된 그날을 앞당겨 올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8월 7일
서울

통일운동조직들에 드리는 서한

각계 통일운동조직들과 통일인사들!

우리 민족의 광복절인 8.15가 눈앞에 다가왔다.

바야흐로 ≪6.15~8.15통일촉진운동기간≫은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와 단합을 내외에 과시하는 역사의 장으로 빛나게 결속해야 할 때이다.

이제 우리의 통일운동조직들과 각계각층민중은 하나가 되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통일대행진에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8.15광복절에 즈음하여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을 위해 이 공개서한을 발표한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확약한 6.15공동선언의 발표는 자주통일을 위한 새 시대 개막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다.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우리 민족은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를 통일의 세기로 마중할 수 있는 밝은 전망을 받아안게 되었다.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1년동안 이 땅에서는 사대와 분열의 암운이 자주와 통일의 서광으로,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냉전과 대결의 기류가 화해와 협력의 조류로 바뀌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개척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겁을 먹고 불안을 느낀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또다시 우리 민족의 통일행진을 가로막아 나서며 민족공동의 통일강령과 6.15공동선언자체를 무산시켜 버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정권은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에 다시금 신냉전기류를 퍼뜨리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으며 그와 한짝이 된 이 땅의 냉전수구세력들은 ≪주적불변론≫과 ≪외세와의 공조론≫을 외쳐대며 6.15공동선언이행을 걸음마다 방해해 나서고 있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의 훼방책동으로 남북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던 대화들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됐다.

현시국은 지금 우리 민족, 민중의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이 땅에 평화와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나가느냐 아니면 미제와 냉전수구세력들의 6.15공동선언파괴책동으로 한반도가 다시금 대결과 영구분단의 길로 줄달음쳐 가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있다.

이 시각, 우리에게는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 정신을 이행하기 위한 전국민적 공동투쟁에 나서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활적 과제는 없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평화와 통일의 전도가 집약되어 있다. 그 성공여부는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공동행동에 달려있다.

오늘날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서 공동행동의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가 지지하지 않는가 하는데 있다. 여기에는 정견과 신앙의 차이도, 당국과 민간인간의 계선도, 당파와 소속의 소재도 따로 있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사상과 이념, 신앙을 초월하여 다같이 손잡고 통일운동에 함께 나서야 한다.

시국은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운동세력의 폭넓은 단합과 통이 큰 연대, 대범한 공동행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과거를 가지고 따질래기를 하면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나서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 누구는 배척하고 따돌리며 또한 계급, 계층과 소속이 다르다고 하여 외면한다면 언제가도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민족적대단결을 실현할 수 없다. 이것은 조국통일문제해결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조국통일이 전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가 되는 길이라면 6.15공동선언은 이 길에서 우리 민족이 편차없이 곧바로 나아가게 하는 자주통일선언이자 민족대단결선언이다. 우리의 통일운동진영은 이같은 조국통일문제의 성격과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게 그 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의 거족적단합과 공동행동을 실현할 때만이 반통일세력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을 최대한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달아오른 국민의 통일열기와 화해와 협력에로 큰 걸음을 내디딘 남북관계를 자주통일에로 줄기차게 이어나갈 수 있다. 바로 여기에 애국애족이 있고 통일이 있다.

오늘 통일운동세력들의 단합과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앞장서야 할 주력군은 우리 민중의 믿음직한 선봉대인 노동자계급이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민족문제해결에서도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계급으로서 가장 선진적이고 조직적인 부대일 뿐아니라 그 어느 계급보다도 넓은 포옹력과 아량을 지닌 계급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횡포무도한 미제침략세력과 가장 반동적인 냉전수구세력들을 척결하고 자주적인 민족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연대공동행동문제에서도 1,300만 노동자계급이 그 선두자로 나설 때만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만일 우리 노동운동조직들이 이같은 자기역사적 사명감과 전민중적 기대를 망각하고 일각에서 울려 나오는 ≪민족대단결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느니, ≪노동자계급은 북의 민족대단결노선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면 통일애국세력의 분열에서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반통일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오늘 이 땅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고 분열의 비극을 가시기 위한 통일문제와 노동자계급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생존권투쟁은 별개의 상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연관되어 있다. 식민지 이 땅에서는 민족적 모순부터 해결되어야 계급적 모순도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서 민족대단결은 양자의 실현을 다 같이 담보하고 있는 근본초석이며 천하지대본이라 하겠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손잡고 연대해야 하며 여기에서 통일운동의 주력인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야 한다.

실천적으로 현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노동자계급은 당국의 대미의존정책과 반민중적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해야 하지만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연대를 실현하고 그들을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로 견인해내야 한다.

그리고 비록 당국의 관변단체일지라도 우리 노동자계급은 그의 보수적인 경향성만 볼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운동에 동참하려는 긍정적 측면부터 보고 그와의 적극적인 공동행동을 통하여 그 내부에서 우익의 목소리가 커지지 못하도록 견제하면서 민족자주적인 입장에로 확고히 돌려세워야 한다.

우리의 통일운동조직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손잡고 8.15통일공동행사에 모두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8.15통일공동행사장이 곧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통일애국세력의 대화합장으로, 미제와 이회창패당을 비롯한 내외반통일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리는 역사의 심판장으로, 6.15공동선언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정국전환의 돌파구로 되게 해야 한다.

뭉칠수록 커지고 커질수록 강해지는 것이 단결의 위력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하나로 뭉친 통일애국세력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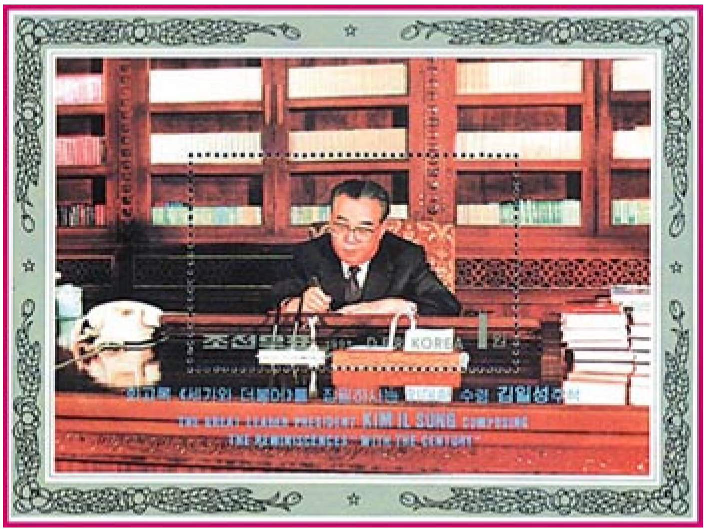
온 민족의 절대적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모시고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나선 우리 민족, 민중의 통일성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모두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8.15통일공동투쟁에 총궐기하여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2001)년 8월 8일
서울

3부통합

세기와 더불어 제1권



…

민족주의자들이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파벌싸움을 계속하고 있은 사이에 일제는 그들속에 주구들을 박아넣어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손쉽게 붙잡아갔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오동진이 체포된 것이었다. 일제경찰은 주구 김종원을 시켜 조선의 큰 금광주 최창학이 장춘에 와있으니 그와 교섭하면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해결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유인해내여 장춘부근 흥룡산역에서 체포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얼마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다싶이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후 오동진의 아들 오경천이 길림영화관에 구경을 갔다가 화재사고로 죽었다. 내가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업어내오기는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남편이 감옥에 잡혀가고 아들까지 잘못된 후 오동진의 부인은 고민끝에 정신이상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가 가서 위로도하고 병구완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부인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동진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정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3부통합을 한다고 매일같이 모여앉아 술추렴이나 하면서 세력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니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이 좋을수가 없었다.

오동진의 체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경찰은 더 많은 반일운동자들을 붙들어가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쳤다.

그래도 3부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말공부질만 계속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바지가랭이에 모래를 넣고 정미소울타리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달리기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눈앞에 박두하고 조국의 운명도 날을 따라 더 암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다못해 우리는 오동진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님들이 크게 깨달은바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놈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름있는 반일운동자들을 하나하나 체포하여 처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앉아 회의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만과 북만, 동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선사람 모두가 단결을 이룩하도록 하루속히 3부통합을 성사시켜주기 바랍니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3부의 지도자들은 그후에도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의 조바심과 안타까움이란 실로 형언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파벌싸움에만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간의 무장력을 쥐고 있은 민족주의자들마저 그런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우리는 생각다 못해 그들에게 좀더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은 ≪3인1당≫이다.

준비가 다된후 내가 가서 3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푸실겸 한번 와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하면서 손정도네 례배당으로 찾아왔다.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처음에는 그 령감들이 연극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세사람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네들을 풍자한 것임을 알아채고는 얼굴들이 시뻘개서 ≪나쁜놈들, 우리를 감히 모욕해? 저 성주가 아주 못쓰게 됐다.≫고 하면서 달아나버리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찌기 그들한테 찾아가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어제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도중에 가시었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령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제저녁 우리를 뭐라고 욕했는가고 나에게 대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

그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류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룡준파의 련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었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림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각파의 지도자들은 국민부의 지붕밑에 들어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앉아 딴꿈을 꾸었다.

민족주의진영의 보수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것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력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국제태권도연맹 총재와 한 담화
주체68(1979)년 5월 12일)



나는 최홍희선생이 멀리 해외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찾아온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들의 이번 상봉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이 훌륭한 글을 써보낸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이 써보낸 그 글은 우리들의 상봉과 단합을 상징하는 기념으로 될 것입니다. 선생은 그동안 조국에 있는 일가친척들을 다 만나보았습니까?

이번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때 미국국적을 가진 조선사람이 미국탁구선수단의 통역원으로 평양에 와서 몇십년만에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서먹서먹해하였는데 혈육의 정으로 하여 인차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국탁구선수단 성원으로 온 다른 한 재미교포는 우리 나라에 올 때 돈에 매수되어 남조선 ≪중앙정보부≫놈들한테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자백하고 자기의 가족을 만났는데 그들의 상봉이 대단히 감격적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재미교포조국방문단을 받자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합법적으로 조국에 많이 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만든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보았습니까? 우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사관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분장을 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소련과 합작하여 영화를 만들지 않았는가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선생이 흉금을 털어놓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한 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영원히 분열될 위험에 처하여있습니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영구분열의 올가미를 씌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열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줄 몰랐습니다.

조선민족이라면 북과 남에서 살든 해외에서 살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관계없이 모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민족의 영구분열의 위험을 막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자면 자주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조선사람들끼리 조국통일문제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외세를 등에 업고 그에 의존해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설사 실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짜 통일이 아닙니다. 조국을 통일하고도 남의 지배를 받는다면 통일한 의의가 없습니다. 조국통일은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한다는 것입니다. 7. 4남북공동성명에는 조국통일을 위한 이 세가지 원칙이 다 반영되어있는데 박정희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7. 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대표로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와 만나 담화하면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국통일은 첫째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며, 둘째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남조선과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북조선은 두 극이기 때문에 북과 남이 절대로 합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조국통일문제는 민족내부문제이다, 조선사람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 견지에서 볼 때 북과 남이 하나로 합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한 나라안에서 신앙과 정치적 이념이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나라가 많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에 계선을 긋고 우리 민족이 합칠 수 없다고 하는가, 우리는 우리 민족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얼마든지 단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나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조국통일 3대원칙을 찬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내가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박정희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남측 대표가 평양에 왔다간후 우리측 대표가 서울에 가서 박정희를 만났습니다. 우리측 대표가 박정희에게 우리가 내놓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다시 설명하였는데 그도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측 대표가 그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하니 그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있다가 남조선당국자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마 미국상전한테서 그렇게 하라고 지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제의에 응한 것만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해 7월 4일에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는 북과 남이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그 이행을 온 겨레와 세계 앞에 엄숙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조선의 한 당국자는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그 이튿날 우리와 합의한 공동성명의 사항들을 뒤집어놓았습니다. 그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은 외세가 아니며 ≪반공법≫은 취소할 수 없고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런 식으로 7. 4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모두 부정하였는데 이것은 민족앞에 다진 서약도 조선민족으로서의 양심도 다 집어던진 범죄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행위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가를 두고 보자는 생각에서 참았습니다.

그 이후에 북남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대표들이 평양에 왔습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 담화하면서 북과 남의 경제합작문제를 새롭게 제기하였습니다.

합작이라는 것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작한 북남대화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 합작을 해야 북과 남사이에 오해를 실질적으로 풀고 이해를 깊이할 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기초를 튼튼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북과 남은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합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합작문제에서 제기한 것은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의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이였습니다.

나는 남측 대표들에게 남조선에서 실업자가 많아 그들을 다른 나라에 내보내고 있는데 대하여 내놓고 말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실업자들을 서부독일과 브라질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노동력으로 팔아먹고 지어 여자들과 어린이들까지 팔아먹고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제발 그런 놀음을 하지 말고 실업자들을 공화국북반부에 보내어 쇠돌을 캐가도록 하자, 공화국북반부에는 쇠돌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있다, 당신들은 노력을 대고 우리는 기계설비를 대어 쇠돌을 캐자, 그렇게 하면 당신들이 먼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에 가서 쇠돌을 사다가 제철소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관개공사를 해주는 문제도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일본에서 수지기와를 사다가 초가집이영을 바꾸어 잇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새마을운동≫을 해서는 의의가 없다, ≪새마을운동≫을 하려면 관개공사를 하여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 배불리 먹고

잘 입고 편안히 살며 아들딸들을 마음껏 공부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관개공사를 하면 농사를 잘 지어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기간 관개공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당신들의 관개공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해방된 다음부터 치산치수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저수지를 많이 건설하였는데 지금 저수지가 1, 500여개나 됩니다. 이 저수지들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흉풍을 모릅니다. 나는 남측 대표들에게 남조선에서 치산치수를 잘하고 관개공사를 많이 하면 지금 있는 부침땅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식량을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관개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나가 관개공사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가 남조선에 관개 기술자들과 설비들을 보내어 관개공사를 도와주겠으니 일본사람들한테서 빚을 내어 초가집이영을 울긋불긋한 수지기와로 바꾸어 잇는 놀음을 하지 말라, 빚을 지기는 헐해도 그것을 갚자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말해주었습니다.

경제합작과 관련하여 우리가 제기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가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측 대표들에게 남조선에서 어민들이 바다가 오염되어 물고기를 얼마 잡지 못하는데 우리 어장들에 들어와서 물고기를 잡아가도록 하자, 신포앞바다를 비롯하여 동해안의 어장들은 난류와 한류가 합치는 곳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많다, 해마다 명태철이 되면 명태가 떼를 지어 몇백만톤씩 밀려오는데 우리는 60만톤밖에 잡지 못한다, 그러니 남조선어민들이 우리의 어장에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게 하면 잘살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구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합작문제를 제기하자 그들은 다 찬성하는데 합작이란 말이 재미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중국에서 장개석이 국공합작을 했다가 녹아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작이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자, 그런 말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합작의 내용인데 그 뜻을 알겠는가고 물으니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북남합작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남조선언론계에서 ≪대화있는 대결≫이요, ≪대화있는 경쟁≫이요 하는데 대결이나 경쟁은 말그대로 서로 승부를 겨룬다는 뜻이다, 북과 남이 대결하고 경쟁하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고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북과 남은 대화있는 단결, 대화있는 합작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북과 남이 경제합작을 하면 북과 남사이의 격폐상태가 해소되고 서로 이해 안되는 문제도 저절로 풀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조선의 공업과 농업이 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조선 자본가들도 좋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측 대표들은 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고 그저 지당한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박정희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서 우리가 내놓은 경제합작은 그만두고 금강산이나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광업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금강산에 기생관광을 차려놓자는 수작이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제기한 대화와 합작을 외면하고 금강산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가 갑자기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이란 구실을 대고 ≪계엄령≫위에 ≪비상계엄령≫까지 공포하고 파쑈적인 ≪유신체제≫라는 것을 꾸며냈습니다. 북과 남이 대화를 시작한 것은 서로 불신임을 풀자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또 우리가 남측과의 대화에서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들은 대화의 끝장을 보기 전에 ≪비상계엄령≫을 공포하고 대화를 파탄시켰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북남대화를 계기로 우리의 영향을 받은 남조선인민들이 민주인사들과 힘을 합쳐 4. 19와 같은 인민봉기를 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들의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남조선당국자들이 극악무도한 ≪유신체제≫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북남대화는 남측 대표들과 남조선인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컸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할 때 첫 남측 수석대표로 공화국북반부에 온 사람은 평양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와서 지난날 자기 집이 있던 보통벌에 나가보고 놀라와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날에는 오막살이밖에 없었던 보통강반에 현대적인 평양체육관과 인민문화궁전이 일떠서고 공원이 펼쳐져있으니 그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때에 평양에 왔던 남측 기자들이 거리에 나갔다가 지나가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장과 만년필을 주었는데 어린 학생들은 우리에게는 학용품이 다 있으니 그것을 도로 가지고가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고 구두닦이를 하는 남조선어린이들에게 주라고 하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남조선기자들은 돌아가서 북조선어린이들에게도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잘 교양된데 대한 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때에 우리 기자들은 서울에 나가 점잖게 행동하여 그곳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여관방도 자기 손으로 정돈하고 구두도 자기 손으로 닦아 신었으며 목욕도 자기 손으로 물을 받아하고 양복도 자기 손으로 다려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관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봉사비는 봉사비대로 주었습니다. 우리 기자들가운데는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측 안내성원들이 우리 기자들을 기생집에 데리고가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번 목격한 남조선 여관관리원들은 자기들끼리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북조선사람들이 머리에 뿔이 나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인줄 알았는데 정작 만나보니 제일 점잖은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많은 남조선사람들이 우리 대표단성원들을 만나보겠다고 여관에 찾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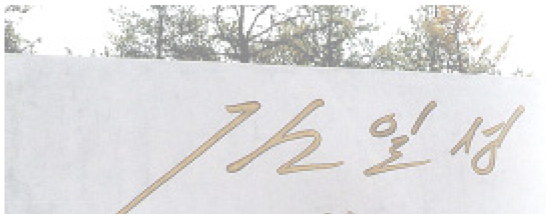
남조선당국자들은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주는 우리의 영향이 커지자 적십자회담을 평양과 서울로 내왕하면서 하지 말고 판문점에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민들이 사상정신적으로 건전하고 단결되어있기 때문에 평양과 서울로 왔다갔다하면서 회담을 계속 하다가는 저들이 견디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타산에서 그런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만들어가지고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비롯하여 애국적 인민들을 마구 탄압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위구심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진정으로 화합하고 단합하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을 놓고보면 민족대단결을 반대하는 것은 박정희 같은 극소수의 매국노들 뿐이고 절대다수의 인민들은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성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대단결문제는 오늘에 와서 내가 처음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민족의 대단결문제를 벌써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제기하였습니다.

나는 길림에서 공부를 하며 청년운동을 할 때 민족의 단결을 이룩하는데 저해를 주는 두가지 현상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민족주의운동의 거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나라를 찾을 궁리를 하지 않고 밤낮 모여앉아 말싸움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림 복흥태정미소에서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거두들이 모여 3부통합회의를 하였는데 나는 학교에 갔다오다가 자주 거



기에 들려 구경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밤낮 모여앉아 말싸움이나 해서야 어떻게 조선의 독립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속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서 부질없는 말싸움만 하기 때문에 좀 자극을 줄 목적으로 ≪3인1당≫이라는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3인1당≫은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권력싸움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풍자극이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다닐 때 그런 글을 쓰는데 취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날 손정도목사의 예배당을 빌려 거기에서 연극을 공연하기로 하였습니다.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손정도목사의 집에 자주 들리군 하였는데 청년운동을 하면서부터 그 예배당에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내가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을 찾아가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연극을 준비하였는데 와서 구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계속 하여 지루감을 느꼈던지 좋아하며 구경을 왔습니다. 공연의 첫 대목은 노래와 춤 같은 것이어서 그들이 좋다고 보았는데 마지막에 세사람이 서로 자리다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풍자극이 나오자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음날 아침 그들을 찾아가 왜 공연도중에 나갔는가고 물으니 자기들을 욕하는 연극을 만들었다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남의 나라 땅에 와서 말싸움만 해서야 어떻게 나라를 독립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극을 받았는지 그후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를 통합하여 국민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사실을 여자독립군으로 유명했던 이관린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길림에서 청년운동을 할 때 목격한 것은 또한 조선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국제당의 승인을 받겠다고 감자도장을 만들어가지고 돌아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인민대중을 묶어세워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엠엘파, 화요파, 북풍회파로 갈라져 ≪영도권≫쟁탈을 위한 당파싸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저런 식으로 해서는 공산주의운동도 조선독립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름있는 종파거두들을 거의 다 만나본 것이 이때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당파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는가,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다니는가, 조선혁명을 잘하면 자연히 국제당에서 승인하지 않겠는가, 우리 청년들은 공산주의운동을 해도 그렇게 너절하게 하지는 않겠다, 우리보고 누가 승인받으러 오라고 하면 걷어차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백산청년동맹 결성모임에서도 종파를 철저히 반대배격할 데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언제나 민족의 대단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창립하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 인테리, 종교인들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묶어세웠습니다. 천도교중앙의 최린은 일본제국주의자들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층 천도교인들은 우리를 지지하였습니다. 천도교의 령북도정이였던 박인진도 우리를 지지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후에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1948년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연석회의에는 김구, 김규식, 조소앙 선생과 최덕신의 아버지 최동오선생 그리고 홍명희선생을 비롯하여 남조선에서 명망높은 민주인사들이 수많이 참가하였습니다. 김구선생은 ≪상해임시정부≫성원들과 함께 남조선에 들어갈 때 큰 인물로 알려져있었습니다. 그는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할 데 대한 우리의 초청을 받고 나에게 보내온 편지에서 자기는 지난날 ≪상해임시정부≫에 있을 때 공산주의자를 오해하고 많이 죽이었는데 그것을 백지화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김구선생의 편지를 그의 서기가 가지고 왔는데 나는 편지를 받아보고 그가 비록 공산주의자들을 죽이고 칭찬받지 못할 일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간 일은 백지화하고 손잡겠으니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김구선생이 38선을 넘어 평양에 왔습니다. 나는 그와 여러번 만나 담화하였습니다. 우리가 김구, 김규식 선생과의 담화에서 내놓은 기본정신은 남의 장단에 놀지 말고 춤을 추어도 자기 장단, 조선식 장단에 맞추어 조선식 춤을 추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대로 하면 주체를 세우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김구와 김규식 선생은 옳은 말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4월남북연석회의와 관련하여 앞으로 참고해야 할 문제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여당을 제쳐놓고 야당세력들과만 연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남북연석회의에 이승만의 당도 참가시켰더라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성과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직후 남조선민주인사들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이룩해놓은 성과를 박헌영이 다 말아먹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할 데 대하여 여러번 강조하였으나 그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여운형선생이 살아있었더라면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였을 것입니다. 여운형선생은 세번이나 비밀리에 38선을 넘어와 나를 만났습니다. 나는 여운형선생이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에서 식사를 같이하고 그와 담화를 하였습니다. 그가 두번째로 왔을 때에는 초대소에 들게 하였습니다. 여운형선생과의 세번째 상봉이 그와의 마지막 상봉이었습니다. 나는 여운형선생에게 우리가 보기에도 남조선에서 활동하는 공산당이 편협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공산당과 합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박헌영과는 손을 잡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와 좋게 지내면서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승만과는 통일전선을 못하더라도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는 통일전선을 해야 한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자면 선생이 그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이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여운형선생은 우리의 말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나갔는데 암살당하였습니다. 지금 여운형선생의 자녀들이 모두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여운형선생이 살아있을 때 두 딸을 키워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기에 그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내어 공부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은 여운형선생이 죽은 다음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나라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라가 망한 것은 큰 나라들의 포위속에 있으면서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지 못하고 봉건통치배들이 친러파, 친청파, 친일파로 갈라져 저마다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사대주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대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가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나갈 데 대하여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일군들에게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하고 당이 사대주의를 하면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다고 늘 말합니다. 나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 대표에게도 사대주의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박정희가 우리의 본을 따서 ≪자조≫, ≪자립≫, ≪자위≫라는 말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국과 일본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자조≫, ≪자립≫, ≪자위≫라는 그의 말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구호입니다. 그가 사대주의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한 남조선이 미제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이룩하기 어렵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대주의를 배격하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고수하고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3대원칙을 떠나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고수하고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자면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로, 미국, 일본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내가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조국에 왔을 때에도 말하였지만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일본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지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사람들과 사업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 보이고 나라의 통일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가지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한 이해를 바로가지고 좋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미국, 일본, 서부독일, 프랑스를 비롯하여 자본주의나라의 숱한 기자들이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서방기자들의 반영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에 대하여 좋은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양이 일본 도쿄보다 살기 좋다고 하였고 아시아에 평양같은 문명한 도시가 있는데 대하여 놀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양이 깨끗하고 질서있는 공원속의 도시라고 하면서 평양에는 극장과 영화관이 많아 사람들이 문명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술집이 있어도 술을 마시고 주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하철도를 참관하고 지하≪궁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기자들이 이번에 우리 나라에 올 때 반미감정이 높은 우리 인민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해주겠는가고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서 쓴 글을 보면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며칠전에 우리 나라에 왔다간 미국 ≪에이피≫통신사기자가 쓴 글을 보았는데 그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러저러한 형의 공산주의국가를 보았는데 이번에 조선에 가서 주체와 자주성, 자력갱생을 자기의 철학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형의 공산주의국가를 발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우리 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가 자주성이 강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기자들이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조선에 와보고서야 우리 나라가 철저히 자기 식으로 나가는 자주적인 나라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고 한 사실은 미국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대하여 잘 모르고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조선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이 아니라 자주적인 나라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사람들이 우리 나라는 지금도 다른 나라의 위성국이 아니지만 앞으로 통일되어도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소련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의 편에 붙어서 정세를 저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미국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는 영원히 엄정한 중립국가로, 블록불가담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블록불가담운동 대열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일부 큰 나라들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는 큰 나라들이 하라는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에 따라 블록불가담운동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나라는 앞으로도 블록불가담운동의 이념에 맞게 그 어떤 블록에도 속하지 않으며 큰 나라들의 세력권쟁탈전에 끼어들지 않는 엄정한 중립국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미국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사람들에게 우리 나라는 모든 지배주의를 반대한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있은 공화국창건 30돌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지금 세계에 여러가지 형태의 지배주의세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지배주의를 다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반대배격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거나 그 하수인노릇을 하는 것도 반대하며 남의 일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간섭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록불가담나라들속에서 진보적 나라이니, 비진보적 나라이니 하고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의 진보의 표징은 자주성에 있으며 자주성을 견지하는 나라가 바로 진보적인 나라이며 그렇지 못한 나라는 진보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명백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유엔사무총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을 때 그에게도 당신이 우리 나라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나라는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도 아니고 남의 지배를 받는 나라도 아니다, 우리 나라는 오늘 뿐 아니라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어도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철저한 자주적인 국가로, 중립국가로 될 것이며 블록불가담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성을 견지하고 주체사상과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나라에 예속되어 그 나라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놀음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와 미국, 일본은 적대관계에 있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고 우리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중립적 입장을 지지한다면 미국, 일본과도 좋게 지낼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각국 공산당들도 그 어떤 큰 나라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려 하지 않으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민족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977년에 프랑스신문 ≪몽드≫주필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나에게 구라파식공산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구라파식공산주의니, 아시아식공산주의니 하는것 을 잘 모른다, 그러나 최근 구라파공산주의운동에서 많은 나라 공산당들이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말을 프랑스신문 ≪몽드≫가 그대로 실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도 우리 식대로 하고 있으며 조국통일문제도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해방직후 신의주에서 반동들의 부추김밑에 학생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그들앞에서 연설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나보고 장군님도 공산주의자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공산주의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라의 완전독립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견결히 싸우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다, 나는 어떤 다른 나라를 쳐다보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우리 인민에 의거하고 조선인민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이다, 여러분도 공산주의자들을 따라 새 민주조선 건설에 떨쳐나서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시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식민주주의도 아니고 소련식민주주의도 아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새형의 민주주의이며 조선식민주주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소련사람들이 있는데서 내놓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련사람들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런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연설이 끝나자 청년학생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도 철저히 주체적 입장에 서서 우리 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국이 통일되어도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를 버리고 무엇 때문에 백만장자들을 키워내는 자본주의제도를 세우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 남조선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들을 못살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자주성을 견지할 것입니다. 미주에 있는 동포들이 미국사람들과 접촉할 때 우리의 이러

한 입장을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조선을 내치고 남조선에 투자한 미국재벌들의 자본을 다치지 않겠는가 하는 미국사람들의 위구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왔던 미국기자들이 우리 사람들을 보고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면 거기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북조선사람들이 남조선을 내치지 않겠는가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미국자본가들의 위구심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사람들은 남조선문제는 남조선사람들 자체가 결심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을 내치고 남조선에 투자한 외국자본가들의 자본을 다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은 미국사람들 뿐 아니라 일본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일본의 일부 완고파들은 우리 나라의 군사분계선을 저들의 이권을 지켜주는 ≪반공방파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해전에 일본의 한 야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서 북조선은 모든 것이 잘 째이고 강하기 때문에 북조선정권이 부산까지 나오게 되면 일본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가 미국, 일본사람들에게 ≪남침≫하려 하지 않으며 통일되어도 남조선에 투자한 외국사람들의 자본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이 우리에 대한 이해를 바로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독점자본가들이 남조선에 투자한 저들의 자본을 우리가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미국의 대조선정책에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정책은 독점재벌들의 의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을 변경시키라면 변경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점자본가들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대통령도 갈아치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35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 온 미국기자들과 사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남조선에 공산주의를 강요하려 하지 않으며 통일된 다음에도 남조선의 현 사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남조선에 외국자본가들이 투자한 자본을 다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는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합니다.

선생을 비롯하여 미주에 있는 조선동포들이 미국사람들에게 우리 나라가 통일되어도 미국자본가들이 남조선에 투자한 자본을 몰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사람들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잘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경계심과 위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며 조국통일에 저해를 주는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잘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을 창건할 때에 당마크에 노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함께 인텔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넣었으며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인텔리를 내세웠습니다. 당마크에 인텔리를 상징하는 붓을 새겨넣은 것은 우리 당밖에 없습니다. 당마크에 새겨넣은 붓은 우리 당의 인텔리중시정책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해방직후에 인텔리들을 포섭할 데 대한 정책을 내놓자 그것을 반대하는 파들이 많았습니다. 박헌영같은 우경분자들도 반대하였고 오기섭같은 좌경분자들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텔리들을 포섭할 데 대하여 완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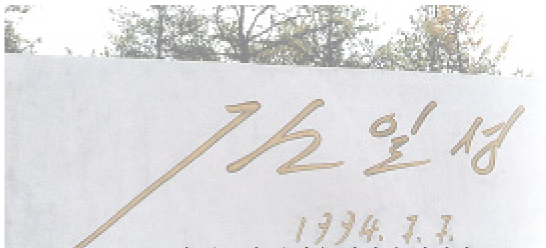
해방후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 농민의 힘에 의거하는 것과 함께 인텔리들의 기술과 지혜를 적극 발동하는 것이였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기술인재가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인텔리를 포섭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평양에 대학은 하나도 없고 공업전문학교와 의학전문학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술인재가 많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새 조국을 건설하자면 인텔리들을 포섭해야 하였습니다. 물론 일제때 공부한 사람들이 돈냥이나 있는 부유한 가정의 출신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때에는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 아니고서는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사람도 부유한 가정의출신으로서 일본 도쿄에 가서 사립대학을 다닌 건축기사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노교수, 노박사들도 대부분 잘사는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승기박사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 해방후 일본에서 남조선으로 건너왔다가 우리가 자기 같은 인텔리들을 믿어준다는 것을 알고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왔습니다. 이승만은 이승기박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방직후 남조선에서 많은 인텔리들을 데려왔는데 우리 나라의 유명한 노배우들도 대부분 남조선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당의 인텔리포섭정책은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인텔리들에게 당신들은 지난날 비록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자본가들과 일제놈들에게 복무하였지만 이제부터 자기 민족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신들도 훌륭한 민족간부로, 혁명가로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인텔리들을 포섭하는 정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당의 민족간부로 자라날 수 있었으며 지금 어떤 사람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올바른 인텔리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의 인텔리대열은 100만대군으로 자라났으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현대적인 공장들을 건설하고 돌리고 있습니다. 해방후 좌우경 기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인텔리들을 배척하였더라면 우리 나라가 오늘과 같이 발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인텔리정책은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일관합니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는 것은 우리 나라를 둘로 갈라놓으려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과 관련되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둘로 영원히 갈라놓으려는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둘로 영원히 갈라질 수 없습니다. 독일은 지난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한 전패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주변 나라들은 독일이 통일되면 다시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일과는 달리 일제의 식민지로 있다가 우리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해방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독일처럼 전패국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우리 나라가 통일되어도 다른 나라에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 어떤 시도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후 김두봉의 문자개혁을 반대한 것도 그 실례의 하나로 됩니다. 김두봉은 ≪6자모≫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쓰자고 하였습니다. 말과 글이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서만 문자개혁을 한다면 한민족안에서 두개의 글자, 두개의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민족을 억지로 둘로 갈라놓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는 절대로 문자개혁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조선글자가 나쁘지 않습니다. 배우기도 힘들고 쓰기도 불편한 한자에 비하여 우리 글자는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우리 글자를 쓰기 쉽다고 하여 언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있는데다가 글자까지 고쳐놓으면 결국 우리 민족은 두개 민족으로 완전히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글을 쓰고 말을 하여도 하나의 글을 쓰고 하나의 말을 하여야지 절대로 두개의 글을 쓰고 두개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족의 공통성을 특징짓는 징표들을 고수하고 살려나감으



로써 민족의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박정희가 ≪승공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망상이며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자는 것입니다. ≪승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을 다 없앤다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화국북반부에 있는 선생의 형님도 죽이겠다는 소리인데 어디 될 말입니까. 놈들은 절대로 우리 노동당원들과 그 가족들을 다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을 잘 형성해나감으로써 적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우리 민족이 두동강이 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지금 해외동포들이 우리의 조국통일방침에 대하여 점차 옳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을 비롯하여 해외의 애국적 민주인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해외동포들과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됩니다. 해외의 애국적 민주인사들은 민족대단결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미국과 일본, 프랑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과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남조선의 인텔리들, 민족자본가들과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남조선의 민주세력과 연대, 연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세력과 단합하고 전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조선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그릇된 선전만 듣다보니 우리의 통일전선정책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면 남조선당국자들이 북조선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고 교회당도 없다는 악선전만 하니 남조선인민들은 우리가 종교인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회당은 우리가 마슨 것이 아니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가 다 파괴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생을 비롯하여 남조선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여러 선생들이 잘 활동하면 우리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남조선민주세력과 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남조선종교인들과도 얼마든지 단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분들이 동포들과의 통일전선사업을 잘하려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하며 동포들속에서 반목질시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생을 비롯하여 해외의 애국적 민주인사들이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전선사업을 잘하여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애국적 민주역량이 해외에서 벌이는 통일전선운동의 위력은 매우 큽니다. 이것은 에스파니아공산당의 합법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니아공산당은 프랑코독재정권의 탄압에 의하여 1939년에 비법화되었습니다. 프랑코독재정권은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파쇼독재정권이였습니다. 에스파니아공산당은 해외에서 프랑코독재정권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마침내 재작년에 합법화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에스파니아공산당 총비서 카릴요가 국회선거를 치른 다음 인차 공화국창건 30돌기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나는 그를 만날 때마다 통일전선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권고하군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나는 카릴요를 만난 자리에서 에스파니아공산당이 근 40년동안이나 비법화되었다가 합법화된 것은 바로 통일전선의 승리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에스파니아공산당 위원장인 이바루리에게도 통일전선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2차 북남연석회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제2차 북남연석회의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대민족회의입니다.

셋째로, 남조선에서 파쇼독재정치를 끝장내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와 각 정당,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자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주화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미국사람들이 계속 남조선에 틀고앉아 박정희파쇼독재≪정권≫을 비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군사파쇼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박정희를 비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미제의 비호가 없다면 박정희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무라 하지메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의 자유민주당 유지의원단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나는 그들과 담화하면서 박정희≪정권≫을 옛날에 조선사람들이 쓰고 다닌 갓에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갓은 머리위에 올려놓고 두 끈을 매야 유지된다, 갓과 같이 박정희≪정권≫은 두 끈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데 그 한 끈은 미국이고 다른 한 끈은 일본이다, 이 두 끈가운데서 한 끈만 끊어져도 박정희≪정권≫은 유지되지 못한다고 말하였더니 그들은 흥미있다고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족의 버림을 받는 박정희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서 우환거리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은 박정희 ≪정권≫을 그대로 계속 두면 그를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나 혼란이 생길 것 같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박정희를 당장 떼면 또 다른 난장판이 조성될 것 같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생을 비롯하여 해외의 애국적 민주인사들이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세력과 연합하여 민주화투쟁을 벌이면 박정희≪유신독재≫는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파쇼독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란에서 파레비독재정권의 파멸이 이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에서 파레비독재정권이 무너진 것은 그에게 군대나 무기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파레비에게는 미국의 현대적 무기로 장비된 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회교의 이념밑에 진출한 이란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의하여 파레비독재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사람들은 회교의 이념밑에 결속된 반파쇼민주세력의 힘을 보지 않고 현대적 무기로 장비된 파레비황제군대만 크게 믿었습니다. 원래 정보정치를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주관주의가 많습니다. 어느 한 잡지를 보니 미국사람들은 이제와서야 회교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인민대중의 힘을 보지 않고 대세의 흐름을 제멋대로 판별하는 미국사람들의 주관주의가 오늘의 이란사태를 낳게 하였습니다. 요즘 미국출판물들에 실리는 글들에서 미국이 현 남조선독재≪정권≫을 그냥 유지한다면 남조선에서 이란 같은 사태를 면할 수 없다고 썼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미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사람들과 사업을 잘하여 미국이 박정희독재≪정권≫을 지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의 군중이 단합하면 박정희파쇼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우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힘쓰겠다고 결의를 다진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민족을 위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선생의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대합니다.

금수산기념궁전의 아침노을

평양 8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장군님 나라의 지경을 넘으시여 혁명실록의 빛나는 장을 새겨 가신다.

그이께서 오르신 길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을것인가.

이 나라 남녀로소의 심장속에 오직 한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내 조국 강산에 격정의 파도가 일고 있다. 오늘의 벅찬 현실을 두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과연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시각 어떤 그리움을 안고 계실가?

우리는 지금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서 있다. 아직 해가 솟지 않은 이른 아침이다. 아침노을이 동녘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이슬기를 머금은 새벽바람에 금수산기념궁전의 하늘높이 공화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어뜩새벽이면 벌써 사색의 바다에 노를 저으시며 산책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불현듯 운하의 저쪽 기슭으로 걸어 오시는것만 같다.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이 나라 방방곡곡과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찾고 찾으시던 하늘이 낳은 절세의 위인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녕 그러하다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 새벽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가?

온 나라, 온 세계를 안고 계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그 무한대한 사색의 세계를 우리 어찌 가늠이나 할수 있으랴.

그러나 우리는 단언한다.

위대한 그이께서는 분명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하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우주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생각하고 계시리라.

걸출한 세계적수령의 뇌리에는 언제나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요하고 가장 절박한 국제문제들과 나라의 중대사들이 먼저 안겨들기 마련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평생이 그렇게 흘러 왔다. 하다면 우리 수령님께서 어찌 이 시각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생각지 않으시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씨야련방 공식방문은 조선혁명과 세계평화위업을 위한 중대사중의 중대사인것이다.

우리 장군님 찍으시는 그 한걸음한걸음에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어려 있고 **김일성**민족의 숭고한 념원이 깃들어 있으며 세계진보적인류의 절절한 기대가 담겨 져 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인가 외국방문의 나날 이른 아침에 하신 잊지 못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친다.

그때도 그 나라의 동녘하늘에 아침노을이 짙게 물 들어 있었다.

붉은 태양이 산마루에 불끈 솟아 오르는 시각이였다. 자연이 펼친 신비의 세계라고도 할수 있는 장엄한 광경에서 이름할수 없는 충동을 느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야. 태양이 빛나는 조선의 앞날은 환히 밝고 창창해.≫

20세기의 뢰성인양 온 우주에 울려 퍼지던 어버이수령님의 그 뜨거운 음성이 21세기 첫해의 오늘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더욱 세차게 메아리치는듯 싶다.

선대수령과 후계수령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인간 매혹의 고결한 정이 세기의 언덕을 넘고 날과 달을 이어 가며 순간의 멈춤이나 변색도 모르는 이렇듯 뜨거운 화폭이 과연 인류사의 그 어느 갈피에 새겨 진적 있었던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로 락관하시던 빛나는 태양이 바로 씨비리광야와 우랄의 산줄기를 넘어 유럽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선군정치의 드센 무쇠주먹으로 고립압살봉쇄의 쇠사슬을 조여 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던 제국주의 강적들과 반동무리들을 단매에 쳐 갈기고 한 민족이 이겨 내기에는 너무도 아름찬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몸소 단신으로 헤쳐 가시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김일성**민족을 력사의 높은 언덕에 올려 세워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가장 깊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은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 꽉 차넘치는것은 선대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였음을…

우리는 그이의 눈빛에서 그것을 느껴 왔다.

인민은 그이의 거동에서 그것을 보아 왔다.

세계는 그이의 음성에서 그것을 들어 왔다.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던 때 우리 장군님께서 어디부터 찾으시였던가. 온 나라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실 때마다 먼저 찾으신 곳은 과연 어디였던가. 비범한 정치실력과 해박한 식견을 지니신 그이의 말씀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제일 뜨겁게 울린것은 무엇이였던가.

낮이나 밤이나 눈 오나 비 오나 때없이 우리 장군님 마음 달려 가신 곳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이다.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으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먼저 서계신 곳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새겨 져 있고 체취가 풍기는 그런 장소이다. 그이의 우렁우렁한 음성에서 열화같이 뿜어 진것은 선대수령에 대한 뜨거운 추억과 무한대한 존대의 정이였다.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보고 듣고 느끼였으리라.

최전연의 영웅의 고지 지혜산마루에 오르시여 현지지도사적비앞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경례를 올리시던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그이께서 천지개벽한 황해남도 삼천군 전진벌토지정리현장을 돌아 보시며 평양시민들이 구월산과 과일군,정방산을 다 볼수 있게 하여야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마음을 놓으실수 있다고 하시던 그 말씀을.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의 업적 전해 주는 고산진의 사적물들앞에서,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의 교양실에 모셔 진 잊지 못할 기념사진앞에서,부전혁명전적지 옥련산밀영의 귀틀집앞에 서 계시던 우리 장군님의 안광에서 뿜어 지던 그 빛발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었던가.

우리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마음속대화를 나누고 계신다. 집무를 보시다가도 현지지도를 이어 가시는 승용차안에서도 그리고 일군들과 사업토의를 하시다가도.

대국상을 당한 후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적이 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수령님을 생각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군 합니다,우리가 너무 고생을 하니 어버이수령님께서 금수산기념궁전에서 내려다 보시고 도와 주실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매 시각 선대수령과 더불어 사업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 이번 외국방문의 길에서 한초한시인들 수령님 생각을 하지 않으신적 있었으랴.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방문으로 조로 두 나라 수뇌분들의 뜻 깊은 상봉이 마련되고 모스크바선언이 채택되고 뿌리 깊은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력사에 아름다운 리정표가 새겨 진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한생의 심혈과 로고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국통일과 부흥강국건설에서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수 있게 된것은 천출위인들의 높은 국제적권위와 비범한 정치실력이 안아 온 응당한 귀결이다.

한 나라,한 민족에게 가슴 벌게 안겨 지는 이 위대하고 력사적인 성과와 업적을 두고 우리 장군님께서 어찌 시각마다 선대수령의 모습을 뜨겁게 그려 보시지 않았으랴. 참으로 이번 로씨야련방방문길은 그 로정에 있어서도 수령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못 잊을 추억의 길이였다.

모스크바의 크레믈리대궁전, 레닌묘, 무명전사묘 등 잊지 못할 곳들과 내 익은 로정은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차례 다녀 가신 력사의 길이였다.

얼룩소가 점점이 풀을 뜯는 넓은 씨비리초원에 눈길을 주시여도,가도가도 끝이 없는 천연수림의 청신한 공기를 호흡하시면서도, 친선의 열정이 뜨겁게 깔려 있는 도시와 마을들을 지나시면서도 우리 장군님께서는 못 견디게 안겨 드는 어버이수령님 모습앞에서 가슴을 적시시였으리…

조국을 멀리 떠나시여 끝 없는 로고와 심혈을 바쳐 가시던 그 한초한초에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더욱 깊이 안겨 든 선대수령에 대한 끝 없는 존대의 정과 조국과 인민에게 바치신 그 귀중한 사랑은 혁명실록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 지게 될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너머로 붉은 태양이 솟아 오른다. 우주의 저 끝까지 붉은 노을이 펴져 가고 있다.

그 밝은 빛발속에 우리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마중하시는듯…



2001 민족통일대축전

8.15평양공동행사, 관심끄는 남측대표단 인사들

임수경, 황석영, 김창현씨 등 포함, 일부는 불허

56년만에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남과 북, 해외동포가 합법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열기 위한 ≪2001 민족통일대축전(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 참가단 340명이 15일 오전 12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이번 대축전 방북허가과정에서 정부당국의 방북불허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음에도 참가대표단들의 면면을 보면 의외의 인사와 단체들이 포함되어 관심을 모았다.

12전 일본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 북한체류기간 동안 통일의 꽃으로 불리우며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나 귀국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조항 위반으로 5년간 수형생활을 해야 했던 임수경씨(33)와 같은해 똑같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소설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가 참가단에 포함되어 언론의 집중을 받았다.

황석영씨는 ≪12년만의 방북인데 지난번엔 비합법적이었고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가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 길이 더 탄탄하고 큰길이 되어 통일로 가는 대도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96년 연세대사건으로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도 이번에는 합법적인 방북이 이루어져 국가보안법사건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이용헌전남대총학생회장(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의 대표단이 방북할 수 있게 되었다.

한총련 소속 김민승(경북대 사회대)학생은 ≪너무 감격스럽다, 비록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북의 청년학생들의 만남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또한 김창현울산통일연대대표(전 울산동구청장, 현재는 부인이 현직 동구청장이다) 역시 ≪감개가 무량하다, 나의 방북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과정에서 반국가단체, 재판결과 이적단체로 규정된 영남위원회사건으로 2년간 실형을 산 뒤 출감후 1년만에 민간방북단의 대표 일인으로 방북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이번 방북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고,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힘주어 말했다.

반면, 재판에 계류중인 이종린범민련남측본부의장, 이용헌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김동원푸른영상대표 등 3인의 방북신청은 불허되었다 .

이에 대해 참가단은 즉석에서 항의표시로 성토집회를 갖고 정부의 처사에 대해 규탄했다. 홍근수목사는 ≪아직 우리의 통일의 갈 길이 멀다는 것에 서글픔을 느끼며 이번 방북과 꾸준한 남북교류로 더 넓게 이해를 증진시켜가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며 정부의 태도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김종수신부는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남북정부 실무관계자들이 노력해서 잘 풀어내 감사하다≫며 남북정부당국이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평가하고 ≪올라가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민족화합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성숙한 자세로 행사를 잘 치를 것≫이라며, 남쪽의 보수세력과 정부당국의 우려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소감을 전했다.

새 천년의 첫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8.15평양공동행사는 막판까지 정부의 방북불허로 무산 위기까지 가는 등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남북 양측당국의 슬기로운 대처로 순조롭게 첫 발을 내디딘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1-08-15

김익흥 기자(ihkim@tongilnews.com)



2001 민족공동행사 남측대표단 출발 성명

통일은 역시 긴긴 기다림 끝에 다가오는 새 역사 창조의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며칠은 분단 반세기보다 더 안타깝고 초조한 시간이었습니다. ≪2001민족통일대축전≫공동행사를 성대히 추진하기로 한 남과 북의 노력과 통일을 향한 온 겨레의 염원을 헛수고로 만들지 않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끝없이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지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진본부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평양에서 민족공동행사를 하느냐 마느냐는 갈림길에서 추진본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온 겨레가 절절히 안고 있는 통일의 염원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결국 추진본부는 평양행을 결정했고, 그 결정에 따른 역사의 공과는 전적으로 추진본부의 몫일 겁니다. 추진본부는 역사의 평가를 준엄하게 받아 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우려와 걱정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남측대표단의 자존심을 가지고 민족공동행사에 임할 것입니다. 추진본부 앞에 주어진 민족과 역사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그것만이 민간교류를 더욱 확장시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이 행사의 성사를 결정한 남북 당국의 노고에 사의를 표합니다. 3대헌장기념탑에서 열리는 개폐막식에 남측의 대표단이 참가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사실상 민족공동행사의 장소를 변경한 북측 준비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높게 평가합니다. 아울러 우려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방북을 승인한 우리 당국의 어려운 결정도 높게 평가합니다.

남과 북의 이러한 결정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고려연방제와는 다른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추진본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민간교류협력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금 확인했으며 앞으로 그 폭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고 새삼 다짐했습니다. 이번 남북공동행사를 계기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성숙한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을 떠나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으로 가는 우리의 가슴은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안되는 길이기에 천근만근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이 발걸음이 통일로 가는 길을 더욱 넓힐 것임을 굳게 믿고 서울을 떠나겠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2001 민족공동행사를 경축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모든 산과 강, 땅과 하늘이 우리 겨레를 지켜볼 것입니다. 겨레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2001년 8월 15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8.15민족공동행사 남측대표단 일동



≪2001 민족통일 대축전≫ 전야제 앞서 부문별 행사 열려

≪2001 민족통일 대축전≫ 서울행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4일 오후 8시부터 연세대 노천극장을 비롯한 곳곳에서는 ≪2001 민족통일 대축전≫전야제에 앞서 통일연대 소속 각 단체들의 부문별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의 결의대회를 마친 행사참가자들은 7시 30분부터 연세대로 속속들이 도착하여 오후 8시부터 부문별 행사를 진행했다.

노천극장에서는 전국농민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체로 ≪2001년 농민통일한마당≫을 열고 마당극 등 문화행사 위주의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종교인들과 교사들도 도서관과 백양로 앞에서 각각 사전결의대회를 진행했다.

한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도 공동으로 결의대회를 갖고 노래패 ≪아리랑≫의 공연을 감상하며 행사 참가에 대한 사전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9시50분 현재 전야제가 열릴 대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통일뉴스 2001-08-14
오인환기자(ihoh@tongilnews.com)





전야제, 2만여명 모여 통일열기 발산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지난 13일 밤 연세대에서 연 문화마당으로부터 실질적으로 8.15민족공동행사가 시작되어, 14일 밤 10시30분에 통일연대가 주최하는 ≪2001 민족통일 대축전(대축전)≫ 전야제가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전야제 본행사에 앞서 8월 초 구성되어 전국을 혹은 각 지역을 돌며 시민들을 직접 만나면서 홍보와 다양한 행사를 가져온 통일대행진단과 통일선봉대들의 환영식이 있었다.

영식에서 통일대행진단 노수희단장은 ≪각 지역에 통일의 열망을 전하며 어제 서울에 입성했다≫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국놈을 몰아내어 자주 통일을 이룰 것을 만방에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통일선봉대 김명수대장은 ≪노동자계급은 이제 진심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쥐고 나아가야 한다≫며 ≪그 중심에 노동자계급이 우뚝 서고 청년, 학생, 농민이 그리고 이 땅의 양심이 함께 조국을 통일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종린통일연대상임의장은 ≪통일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철조망과 지역도 정견의 차이도 뛰어 넘어 통일의 염원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개회사를 했다.

또한 이종린상임의장은 ≪우리 모두는 조성되고 있는 자주와 단결의 기세에 이어 외세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에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전야제에는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문정현상임대표와 민주노동당 권영길대표의 정치연설과 이어 연세대학교 장정규 총학생회장이 나와 대축전 전야제를 연세대에서 다시 치르게 된 것에 대한 감회를 애기했다.

한편 13일에 이어 14일 낮 종대규모 반미집회를 갖고 연세대에 재집결한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 등은 전야제 본행사 전에 부문별 결의대회를 가졌다.

때문에 연세대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젖어 전야제로 이어졌다. 전야제 행사에서도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신명난 대동놀이판≫이 되어 2만여명의 참가자들은 폭우 속에서도 한데 어우러져, 대축전 전야제는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마쳤다.







통일뉴스 2001-08-15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남북통일의 염원을 안고 달린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광복 56돌 통일연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기념식에는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불구하고 15,000여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여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방규(통일광장)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금 이 순간 서울과 평양에서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남북공동행사로 실현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광복의 정신, 민족자주의 정신이며 통일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역설하고, ≪56년전 조국해방을 이루었던 그 기세로 2000년대 통일의 길을 열어 갑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승환(9기 한총련)의장은 ≪이제 우리의 과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구심점으로 사상과 정견, 단체의 이익을 떠나 통일운동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고 밝히고 새 세기 첫 광복절을 맞아 전국각지에서 온 국민이 어우러져 하나가 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승환의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누구라도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와 국보법철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뉴욕에서 있었던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을 참관하고 돌아온 조현기(양민학살경남대책위)위원장은 ≪코리아 국제전범 재판 위원회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또한 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50년 맺힌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함께 참가한 전국각지의 6.25양민학살 유족 10여명은 ≪50년 맺힌 한을 통일로 풀어다오≫를 외치며 남북이 사는 것은 조건없이 통일하는 길 뿐이라는 데 공감했다.

기념식은 홍순석(한국청년단체)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고, 참석자들은 오후 3시 ≪2001 민족통일대축전≫ 광복56돌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둔치 금성무대로 이동했다.



통일뉴스 2001-08-15
조성현 기자(shcho@tongilnews.com)

≪광복 56돌 기념 통일마라톤대회≫가 15일 오전 10시 시민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KBS앞 도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56년 전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고, 온 국민에게 통일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을 다짐하는 ≪2001 민족통일대축전≫행사의 하나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가 주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여의도한강둔치 금성무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의 사정으로 KBS앞 도로로 옮겨져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10시경 시작되었다. 대회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참가자들은 기념촬영도 하고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풀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밝은 표정이었다.

대회를 주최한 추진본부의 김현수(민화협 조직2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남북통일의 염원을 마라톤을 통해 함께 하고자 통일마라톤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은 21세기 첫 광복절을 맞아 온겨레가 함께 통일대축전을 하는 역사적인 날이다≫고 감회를 피력했다.

출발에 앞서 한국전통리듬체조연합회의 덩더쿵체조와 놀이패 한두레의 통일무, 캐릭터춤 경연이 이어져 마라톤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을 가볍게 했다. 우렁찬 축포 소리와 함께 참가자들은 손에 든 통일풍선을 일제히 날리며 힘찬 출발을 했다.

이번 마라톤은 KBS에서 출발하여 여의도공원, 국회 뒤 도로, 한강둔치공원을 거쳐 금성무대에 도착하는 총 6.15km구간에서 이루어졌다.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한다

구국의 소리 8월 9~10일

지금 각계 민중들속에선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그냥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고 통일도 안된다, 이회창이 있어 가지고는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어느 것 하나 될수 없다, 이회창을 매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단 이시간엔 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논설입니다. ≪이회창을 퇴출시켜야한다≫ 오일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마치 차기 대권자가 다된듯이 으시대고 있다. 제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이회창의 이같은 언동에 대해 국민들은 냉소와 비난의 화살을 던지며 민족과 민중이 더 큰 화를 입기 전에 한시바삐 그를 정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회창이 차기대권을 잡으면 6.15남북공동선언을 말아먹고 우리 민족에게 무서운 핵전쟁의 참화를 덧씌울 화근덩어리이기 때문이다.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 이행을 찬성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은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을 탄생시킨 남북정상회담부터 시기상조라느니 얻을 것이 없다느니하며 반대했다.

그는 우리 민중은 물론 미국백악관관리들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TV앞에 모여앉아 평양상봉장면을 보면서 박수갈채와 환성을 올리던 때에 자기 집에서 TV를 끄고 돌아앉아 손자들과 화투놀이를 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그는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은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진다느니 공동선언에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관련한 문구가 없다느니 하면서 공동선언의 조항마다 악의에 차서 시비해 이회창의 통일의지를 의심한다는 사회적 비난을 맞기까지 했다.

이회창은 공동선언이 이행되기 시작하자 그것을 기를 쓰며 방해해 나섰다.

그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해서 ≪북의 체제강화에 도움을 준다≫, ≪일방적인 퍼주기≫라며 반대하고 경의선철도복원공사에 대해서는 ≪남침통로가 열린다≫며 반대했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는 ≪국민혈세를 탕진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비전향장기수들이 온 겨레의 축복을 받으며 북행길에 오르자 제놈의 패당을 내몰아 도로를 가로막고 차를 멈춰세우는 망동까지 부렸다.

그뿐이 아니다. 이회창은 남북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해왔다. 이북을 소멸해야할 ≪주적≫이라고 하면서 군비를 늘리고 무력을 증강할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고 휴전선에까지 나타나 군장병들에게 북침전쟁열을 고취하는 망언을 지껄이고 있다.

그는 부시미행정부가 출범하자 구세주를 만난듯이 기뻐하면서 백악관의 대북강경정책이 저들의 대북정책과 맥을 같이한다며 쌍수를 들어 지지했는가하면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를 그 1차적인 시험대상으로 삼으려는 미국호전집단의 범죄적 기도를 절대찬성해 나섰다.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동족간에 불화와 대결의 씨를 뿌리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고 악을 쓰는 이회창, 이런 호전광이 권력을 잡는다면 6.15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북침전쟁을 일으켜 민족을 파멸에로 몰아넣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니 이런자를 어찌 계속 정계에 둘수 있으며 더욱이 차기 대권을 꿈꾸게 할수 있겠는가. 민족에게 화만 입히는 이런 독초는 빨리 제거해야한다.

이회창은 자주화, 민주화의 방해꾼이다. 그는 이땅을 반세기 이상이나 불법강점하고 우리 민중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고통을 주고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 절대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군의 양민학살진상규명과 매향리사격장폐쇄 등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이 한미관계에 손상을 준다면서 그에 대한 강경대처를 떠드는가하면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와 일본우익단체의 역사교과서왜곡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로운 반일투쟁마저 ≪한일관계발전에 저해를 준다≫며 자제할 것을 주장해 이회창이 어느 나라 야당총재인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의 애비가 왜정때 일제검찰서기를 하면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는데 적극 협조한 역적이였으니 친미, 친일에 환장한 이회창이 권력을 잡으면 이땅이 미국의 52번째 주로 전락되고 일본의 조계지로 화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회창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역행하는 극악한 수구반동세력의 두목이다. 벌써 20대에 희세의 파쇼독재자 박정희의 심복이 된 이회창은 지난 61년 최대 언론말살사건인 ≪민족일보사사건≫의 담당판사로 반민주악법의 칼날을 휘둘러 조용수사장을 학살하는 등 국민탄압에서 악명을 떨친 파쇼분자이다.

이회창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시기상조라며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언론의 민주화와 언론사세무조사마저 당치 않게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느니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느니 하며 반대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더욱이 그는 민주적 권리와 생존의 권리를 위해 나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마저 시비하면서 정부가 그에 ≪강경조처≫해야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런 자가 권좌에 오르면 파쇼악법들을 휘둘러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땅을 살벌한 파쇼의 도가니로, 제2의 유신시대로 만들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이회창은 애당초 정치인의 자격을 상실한 인간추물이다. 이회창은 자기는 대쪽같은 인물이고 청렴결백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법의를 입고 불법탄압행위를 능사로 자행해온 썩은 대쪽이다. 한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식에 대한 병역비리와 최근에 드러난 부친의 시골주택고액보수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최대염원인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공멸의 화를 끌어들이려는 우환단지, 권좌를 선사받는 댓가로 민족을 미일의 노예로 영원해 내맡기려고 발광하는 천하역적, 이땅을 파쇼의 동토대로 회귀시키려고 발광하는 파쇼광, 청렴정치간판을 걸고 부정비리를 일삼는 사기협잡의 능수 이회창이야말로 국민의 공적이다. 이런 자가 정치를 하고 더구나 대권자리를 넘겨 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족민중앞에 백해무익한 이회창을 그냥 둬두면 우리 국민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사회정의와 진보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회창퇴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경향도처에서 이회창의 반동적, 반민족적 죄행을 단죄규탄하고 그를 정계에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언론도 그의 반역적 정체와 그가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폭로해야한다. 아울러 이회창의 사당으로 전락된 한나라당 특히 한나라당내 그의 심복들과 하수인들의 정체와 죄행을 고발단죄함으로써 그의 수족을 잘라버려야한다.

한나라당 정치인들은 민족의 버림을 받은 자를 따라다니다가는 비참한 운명밖에 더 얻어갈 것이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각계의 민중은 정의의 함성을 더욱 높임으로써 국민의 공적 이회창을 정계에서 기어이 몰아낼줄 안다.

역적이 역적을 낳는다

구국의 소리 8월 9~11일
퇴직교사 박명일씨의 글

지금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내외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회창이 안팎으로 증오와 조소를 받고있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가 너무도 사람들을 아연질색케 하는 역적질만 골라하기에 그 조상의 행적을 파헤쳐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애비는 일제시기의 검찰서기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 일제시기의 검찰서기라면 보통 관직이 아니다. 그때에 검찰서기를 했다는 것은 일제의 큰 신임을 받은 주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법을 마구 휘두르는 법계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친일주구들을 내세워 애국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체포처형케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바로 일제의 수족이 돼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을 일본법에 걸어 탄압처형한 친일주구로써 존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8.15광복후 이회창의 애비를 비롯한 친일파들은 청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득세했다. 언젠가 이회창 애비의 묘위에 말뚝이 꽂혔던 것은 단순히 어느 피해유가족의 개인복수가 아닌 민중의 준엄한 심판이다.

일신일파의 안락과 부귀영화,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도 서슴없이 팔아먹는 친일분자들은 미국의 비호하에 이땅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었고 우리 민중의 의로운 활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했다. 친일파들이 우리 민족, 민중에게 들씌운 불행과 재난은 이루말할수 없이 크다. 일제가 패망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이땅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고 친일파청산투쟁이 각계 민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면 친일역적의 아들인 이회창은 어떤 자인가. 그는 이미 청산됐어야할 매국노의 집에서 나서 매국에 기생해 살았고 매국으로 존재하는 극악한 매국노이다. 애비가 저지른 매국의 덕으로 공부를 하고 미국에까지 가서 미국식교육을 받으며 숭미공미사상에 물젖은 그는 철저한 친미친일분자이다.

일제의 턱찌끼를 받아먹으며 친일에 쩌든 애비를 닮아서인지 이회창은 일본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의 강한 배격과 지탄을 받고 있는 일본의 역사왜곡책동과 관련해서도 유독 이회창은 ≪한일관계에 손상을 준다≫며 신중을 떠들었고 그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그는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의 속셈이 일본을 미화분식하는데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정말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 하겠다.

친일뿐만 아니라 친미 역시 그를 따를 자 없다. 우리 민족과 세계의 공정한 국제여론이 그처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주한미군철수에 대해서 그는 ≪주한미군철수불가론≫을 외쳤고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존재해야한다고 떠들었다. 각계 민중의 정당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무분별한 것으로 매도했고 부시미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우리 국민은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강한 항의와 반대에 부딪치고 있을때 이회창만은 그것을 쌍수를 들어 지지환영하면서 저들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미국에 아양을 떨었다. 요즘에 와서는 미국이 들고나오는 북의 미사일문제, 상용무력감축문제에 목소리를 합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환심을 사보기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부렸다.

매국노치고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지 않은자가 없지만 이회창과 같이 외세에 매달려 권좌를 차지해보기위해 그처럼 민족을 반역하고 민중을 배반하며 통일을 반대하는 역적질에 혈안이 된 그런 매국노는 없다. 독초에서 독초가 나오고 역적이 역적을 낳기 마련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하겠다.

예로부터 역적은 3대를 멸족시키라 했거늘 애비로부터 역적의 대를 물려받은 이회창을 어찌 그대로 둘수 있겠는가. 우리 민중은 역적의 피를 받아 역적질로 대권을 노리는 이회창을 역사의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야 말것이다.



반이회창투쟁과 청년학생의 자세

구국의 소리 8월 9~11일

지금 이회창의 반민주, 반통일행위가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 이회창은 온 민족, 온국민이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을 반대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고 있다. 희세의 매국노, 극악한 민족반역자인 이회창을 둬두면 6.15공동선언이 이행될수 없고 남북사이의 대화는 물론 화해와 협력도 이루어질수 없다. 더욱이는 한반도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져 전쟁까지 터질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그 희생물이 될수밖에 없다.



이회창의 존재는 이제 백해무익하며 이자를 역사의 오물장에 매장하기 위한 투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불의에 가차없고 정의에 불타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국의 부름에 호응하여 거연히 일어나 반이회창투쟁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속에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죄악을 폭로단죄하는 대민홍보활동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이다. 대민홍보활동은 반이회창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 작업이다. 청년학생들은 현시기 정치쟁점화되고 있는 이회창애비의 친일행적문제를 비롯하여 지난시기 이회창이 법관의 모자를 쓰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파쇼악법을 휘둘러 수많은 통일애국민주인사들을 탄압학살한 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해야한다.

이와함께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회창이 저지른 온갖 반통일적, 친미사대주의적, 반민주적 행위들을 사사건건 문제시하고 그로부터 초래될 악결과를 각계민중에게 널리 선전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민족앞길가로막기에 부화뇌동하면서 철저한 검증론, 상호주의, 북한퍼주기시비,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부르짖으며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제2의 냉전을 몰아와 우리 민족을 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이회창의 죄행을 여지없이 발가놓아야 한다.

반이회창홍보활동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시간과 장소, 수단과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능숙히 구사해나가는 것이다. 한총련과 총학생회들은 조직별로 그리고 자체의 실정에 걸맞게 선전반조직, 시내홍보, 전자우편발송, 인터넷을 통한 선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회창의 죄행과 위험성을 폭로함으로써 각계 민중속에 반이회창여론을 높여나가야 한다.

현시기 반이회창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을 6.15공동선언관철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벌여나가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반이회창구호를 들고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민족자주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통일의 원수 이회창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당면하여 8.15를 계기로 민족자주통일운동의 거세찬 파고속에서 이회창의 주적론, 검증론, 상호주의철회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야한다.

각계 민중과의 연대공동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반이회창투쟁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청년학생들이 각계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하여야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을수 있으며 민주통일세력의 단결을 강화해서 이회창 역적을 종국적으로 매장할수 있다. 청년학생들이 올 상반기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화강요를 반대하는 노동형제들의 투쟁에 연대투쟁으로 확대해나선 것이나 방학을 맞아 농활, 공활을 주동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다.

최근 16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이 이회창퇴진운동에 나설것을 선언한 조건에서 반이회창투쟁의 구호를 들고 지체없이 연대연합을 실현하고 범국민적 투쟁에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이회창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 추악한 사대매국과 반통일, 반민족, 반민주적 행위만을 일삼는 이회창 역적이 민족과 국민의 버림을 받고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힐 날은 멀지 않았다. 역사는 그가 누구이든 외세에 빌붙어 동족을 외면하고 민의를 거역할때 수치스런 파멸과 개죽음을 면치 못한 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뜨거운 열정과 정의로움을 간직하고 반이회창투쟁의 선봉에 서서 각계 민중과 힘을 합쳐 민족의 수치인 반역아 이회창을 기어이 매장하고야 말것이다.



특집2-반이회창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희대의 반통일분자 김영삼역도가 전민족적 단죄투쟁으로 정치적 불구가 된 반면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조건에서 극악한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가 반통일세력의 수급역적으로 나서고 있다.

역대 군사깡패들과 김영삼역도의 졸개가 되어 못된 역적질만 배워온 이회창역도는 지금 고조되고 있는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기세를 꺾어보려고 온갖 반민족반통일망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정세는 감격적인 평양상봉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끼리 대단결하여 평화통일위업을 이룩하자는 전민족적 합의가 통일대하를 이루며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격동적인 국면이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 김영삼역적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은 미제국주의의 사주아래 한나라패당을 정치거점으로, <조선일보>모략지를 선전거점으로 전쟁광기를 발산하며 연일 반통일행각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미제국주의와 이회창패거리들과 같은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으로 인하여 현하 정세는 자주냐 예속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첨예하고도 엄중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회창역도는 먼저 미제호전광들의 정치나팔수, 미독점자본의 현지대리인으로 행세하며 차기 대통령자리를 구걸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특급주구로서 김영삼역도를 찜쪄먹을 친미사대역적이다.

부시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대북강경책을 높이 찬양하고 대북 호전망발을 연방 지껄여대는가 하면 미제의 경제신탁통치를 열렬히 옹호하며 노동운동탄압을 악질적으로 선동하는 등 상전의 환심을 얻어 차기 대권을 움켜쥐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천하의 매국역적이 바로 이회창역도이다.

또한 수급 반통일분자 이회창역도는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거나 연방제를 반대하며 <흡수통일>을 주장하는가 하면 <상호주의론>니 <퍼주기론>이니 <시기상조론>이니 하는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전민족적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대세를 역전시키려 감히 망동하고 있다.

피는 못 속인다고 일제 <치안유지법> 아래 친일검사보로 호의호식하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답게 희대의 매국파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를 한사코 반대하며 수구보수세력의 첨병노릇을 하고 있는 놈도 바로 매국파쇼분자 이회창역도이다.

박정희군사깡패의 사법시녀가 되어 정의로운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인간백정도 이회창역도이며, 반민족반통일매문지 <조선일보>를 <대쪽신문>으로 찬양하는 정치모리배도 이회창역도이며, 언론학살의 장본인이면서도 <조선일보>에 대한 정당한 세무비리조사에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황당한 궤변론자 역시 이회창역도이다.

김영삼역도의 충견으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한편 끝내 경제신탁통치를 야기함으로써 이 땅을 천만노동자실업과 기하급수적 농가부채, 살인적인 가정파괴, 윤리파탄의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이회창역도야말로 국민심판대에 올려 세워 즉각 처단해야 마땅한 일급 범죄자이다.

이회창역도는 지금도 현정권으로 하여금 친미예속적이며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화하라고 충동질하며 이 땅을 민족반역의 동토대로, 민중말살의 아수라장으로 전락시키려 악랄하게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자리에 환장하여 전 민족을 핵전쟁의 불구름속으로 몰아가는 것도, 전 민중을 민생파탄의 절벽으로 내모는 것도, 이 땅을 미제국주의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며 영구분열을 획책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역도야 말로 가장 악질적인 민족반역자, 희대의 파쇼광, 특급 반통일분자임에 틀림없다.

천심이나 다름없다는 민심은 이회창역도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 본질을 완전히 간파하고 있으며 단호하고도 광범한 대중투쟁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하고 있다.

이회창역도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국민대중의 정의의 응징투쟁으로 인하여 고양이 앞의 생쥐 같은 초라한 몰골로 꽁무니를 뺀 적이 한두번이 아니며 어느 대학, 어느 지역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이다.

이회창역도의 반동적 궤변들을 비판하는 양심적인 언론과 지식인들이 날을 따라 늘어가는 가운데 심지어 한나라당내에서조차 이회창역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오며 분당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대 파쇼독재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사대매국과 분열책동에 광분하며 민중생활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면서도 감히 반통일역적의 대표로 나서며 대통령자리를 넘보는 이회창역도와 같은 매국역적은 하루빨리 정치무대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미제국주의와 주한미군에 기생하고 역대 군사독재정권과 김영삼역도에 기생하며, 반통일세력과 반공반북의식에 기생하고 <조선일보>매문지와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인간회충> 이회창역도가 갈 곳이란 감옥이 아니면 무덤이다.

대권을 위해서라면 <총풍사건>, <세풍사건>도 서슴지 않으며 대가리에 기름이나 처바르는 <지하철쇼>로 여론조작이나 하는가 하면 군대면제 아들놈에게 최고급외제차를 선물하고 일왕생일에 몰래 참석하여 머리를 조아리는 인간추물 이회창역도는 당장 이 땅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반이회창구호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대중투쟁으로 역적 중의 역적, 추물 중의 추물인 이회창역도를 반드시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 국민심판대에 올려세우고 말 것이다.

반이회창은 애국이요, 친이회창은 매국이며, 반이회창은 통일이요, 친이회창은 분열이다.

해방 직후 친일역적들을 단죄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던 <반민특위>의 역사적 맥을 계승한 우리 <반단특위>는 미제국주의의 특급주구로, 국내 반통일세력의 최악질분자로 나서고 있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를 단죄하는 투쟁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히 전개할 것이다.

대세와 민심에 정면으로 맞서며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이회창역도가 정치무대에서 제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민족반역자 이회창역도는 반드시 정의와 민족의 이름으로 준엄히 단죄될 것이다.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책, 미사일방어체계 찬양하는 친미주구 이회창역도를 처단하자!
경제신탁통치, 민생파탄의 일급주범 이회창역도에게 감옥이 아니면 무덤을!
국가보안법개폐 반대하는 반민주반통일분자 이회창역도를 정치무대에서 제거하자!
<민족일보>사장 사형시킨 박정희파쇼광의 사법시녀 이회창역도를 교수대로!
<총풍>사건, <세풍>사건 웬말이냐, 부정비리범죄자 이회창역도를 철창으로!
반통일모략지 <조선일보>와 한통속이다, 정치모리배 이회창역도를 단죄하자!
동포보고 <주적>운운하는 전쟁미치광이 이회창역도를 이 땅에서 축출하자!
<상호주의론>과 <퍼주기론>, <시기상조론>은 망발이다, 반통일궤변론자 이회창역도를 매장하자!
<연방제>만이 살길이다, <흡수통일> 획책하는 반통일역적 이회창역도를 척결하자!
6.15선언실현 방해하는 반통일세력의 수급역적 이회창역도를 끝장내자!

반통일역적 단죄를 위한 특별위원회(반단특위)
2001년 8월 15일
서울



힘차게 벌어 지는 민족통일촉진운동

로동신문

(평양 8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

11일부 ≪로동신문≫은 전 민족적범위에서 민족통일촉진운동이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는것과 관련한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뗀 화해와 단합의 걸음은 민족통일촉진운동이라는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낸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안팎의 통일의 원쑤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민족통일촉진운동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으며 민족자주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은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다.

민족통일촉진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자주운동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이야말로 민족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민족의 운명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선민족의 강의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민족자주운동이다.

민족통일촉진운동은 애국애족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 시기 우리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 있다.

오늘 우리 겨레는 사상과 제도우에 민족을 놓고 민족적공통성에 기초한 민족통일국가를 세울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다.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제도와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자기의 사활적인 과업으로 받아 들이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단결하여 일떠선 여기에 민족통일촉진운동의 위력이 있다.





서울통일연대, 인사동에서 ≪시민통일한마당≫ 펼쳐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서울 통일연대(통일연대)≫는 11일 오후 6시 인사동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2001 민족통일대축전(대축전) 성사를 위한 ≪서울지역 통일대축전≫을 개최했다.

이중원서울통일연대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노래단 ≪우리나라≫가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와 참가자들의 환호로 그 막을 열었다.

이어서 개회사에 나선 이천재(서울통일연대)상임대표는 ≪조국해방 56주년을 맞는 15일, 평양에서 전민족공동행사가 열리는 역사적인 계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같이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천재상임대표는 이어 시민사회단체에는 작년 두 정상이 합의한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해 사상, 정치, 정견의 차이를 벗어나 단결할 것을 호소하고, 김대중 정부에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자한다면 △국가보안법의 폐기 △주둔미군에 대한 분명한 입장 등을 밝히고 △미국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종린(통일연대)상임대표는 축사를 통해 ≪6.15남북공동선언의 1주년을 기념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축전을 마련했으니, ≪8.15통일대축전≫이 성대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서울시민들과 행사 참가자들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축사에 이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는 대축전에 서울지역 통일연대를 대표해 참여하게 될 김규철(서울통일연대)상임대표는 대축전의 참가자 규모와 의미 등을 개괄적으로 말하고는 ≪이번 평양 축전에 모두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개막식에 앞서 오후 3시부터 인사동 거리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민족공동행사 추진의 의의와 진행경과, 민족대토론회 사진전 등의 전시마당과 얼굴그림그리기, 통일 알까기대회 등의 시민참여마당, 그리고 서울통일연대의 각 지구에서 준비한 풍물, 택견 등의 사전마당이 열려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개막식 이후에도 각 지구에서 준비한 문화마당과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통일뉴스 2001-08-12
송정미기자(jmsong@tongilnews.com)





≪수원 - 서군≫ 2001 경기도민 통일한마당

≪소머리대기≫, ≪강강술래≫ 우리 것이 최고여

12일 수원에서 동군과 서군이 결합한 통일대행진단은 오후 1시경 수원 남문일대 시장거리에서 경기 민중연대(준)가 주최하는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이적규정, 검거방침철회를 위한 경기지역 결의대회에 참가하였다.

결의대회에서는 사전집회로 경기동부지역 통일선봉대 활동보고와 문예공연이 있었다. 이어 통일대행진단 산하 14기 범청학련통일선봉대 총대장 전태영군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지난 6월15일 한총련 학생들이 정식절차를 밟아 금강산 민족대토론회에 참가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잡아 가두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이적규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통일대행진단은 연설이 끝나자 합류한 2기 민주노총 통일선봉대와 함께 한총련이적규정과 검거방침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한총련 대의원 연행을 규탄하는 뜻을 담아 오후 2시10분 수원 남문을 출발해 수원지방경찰청으로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

8·15 56주년 기념식 및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경기도 통일한마당≫이 12일 늦은 7시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지역 시민들과 통일대행진단이 함께 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매향리 전만규대책위원장의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관련 보고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다양하고 참신한 기획과 부대행사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통일대행진단 노동자통선대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율동으로 한마당의 열기는 달아올랐다. ≪수원에서는 이런 통일행사가 그동안 그리 많지 않아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한마당이 열려서 너무 기쁘네요≫라고 평소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김병철(남·30)씨는 이번 경기통일한마당을 오래 전부터 기다렸다고 했다.

한편, 색색의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성남 ≪푸른학교≫ 아이들의 소고춤 간주 도중 한 어린이가≪하루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북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라고 외쳐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수원여성회의 ≪우리 민족끼리 힘합쳐≫ 퍼포먼스, 경인지역 청년회들의 ≪카드섹션≫, 경기 민예총의 ≪금강산 타령≫ 등 다채로운 행사로 한마당에 참가한 시민들은 같이 박수를 치고 흥겹게 율동을 따라하는 대동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전시마당에서는 ≪금강산사진전≫, ≪동양최고 평택 K-55(Osanair Base) 미군기지(200만평) 문제≫,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등으로 주한미군문제와 통일의 기운을 전했다.

≪쇠머리대기≫, ≪강강술래≫ 우리 것이 최고여!

경기통일한마당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은 풍물판굿, 쇠머리대기(차전놀이), 강강술래 등으로 꾸려진 대동한마당이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라는 휘호아래 한마당에 참여한 시민모두가 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대동을 구현하는 장이 되었다.

흔히 아는 차전놀이 비슷한 ≪쇠머리대기≫는 패를 둘로 나누어 양쪽 대장이 기를 들고 소나무와 짚을 이어 만든 쇠머리를 서로 부딪쳐 밀리는 쪽이 패하는 경기다. 풍물굿패의 장단에 맞추어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이동하고, 쇠머리에 여러 갈래로 묶은 색색 천을 펄럭이며 여럿이 힘을 모아 승패를 가른다.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가장 먼저 시작된 대나무 깃대의 대나무 싸움이 끝나고 이후 본 싸움이 시작되었다. 오른쪽의 ≪통일군≫과 왼쪽의 ≪자주군≫이 외치는 ≪자주≫와 ≪통일≫의 함성소리가 끝날 즈음 통일군은 힘도 쓰지 못하고 뒤로 밀리고 말았다. 노동자들과 청년이 합세한 동군(자주)대열이 대부분이 범청학련으로 구성된 서군(통일)대열을 순식간에 휩쓸어버린 것이다. 두 번째 시합 역시 자주팀의 승리로 끝나고, 힘을 쓰기도 전에 뒤로 밀리는 바람에 작은 부상자도 생기기도 했다.

흥겨운 대동의 장은 강강술래를 하면서 더욱 빛을 발했다. 처음부터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문선(남·41)씨는 ≪처음 보는 얼굴들이지만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달집 주위를 돌고 도는 모습에서 같은 시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이 하나되는 것 같다≫며 대동한마당에 참여한 감동을 전했다.

통일대행진단과 노동자들간의 힘다지기 대회가 11(토)일 오전 10시 경 인천 산곡북초등학교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체육대회는 농성중인 부평 대우자동차노조원들과 노동자통일선봉대, 통일대행진단 등 약 3백50명이 참가했다.





통일대행진단과 노동자들은 자주, 단결, 연대, 연합 등 총 4팀으로 나뉘어 기마전, 줄다리기, 샤워 줄넘기, 통일조국 기차를 타고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진행된 기마전. 3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로 구성된 말들은 상대편 대장말의 머리띠를 뺏기 위해 한데 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구멍뚫린 호스를 줄대신 사용한 샤워 줄다리기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줄에 걸릴세라 손을 꼭 잡고 뛰는 등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통일대행진단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노동자들과 통일대행진단은 대우자동차노조가 파업을 진행중인 산곡동성당으로 향하였다.

인천 산곡동성당에 도착한 통일대행진단과 노동자통일선봉대, 대우차노동조합원들은 점심 식사를 마친 후 2시부터 노동자 학생 연대집회를 열었다.

대회사에서 김일섭위원장은 ≪노동자들이 해고된 이후 자본가 측에서는 어용세력을 만들어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고 언론을 통해서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 우







리는 앞으로 GM분리매각반대와 협상의 공개화, 노동조합의 참여, 정리 해고자들의 해결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라며 ≪앞으로 전개할 투쟁에서 대우차가 앞장설테니 학생들도 함께 연대해 투쟁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맹관호통일대행진단서군대장은 ≪노동자 · 농민 분들과 함께 공동선언을 전면에 걸고 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 있을 투쟁에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 연대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중가수 희망새의 공연 후 노동자통일선봉대에서는 플랭카드와 지지대자보를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측에 전달하였다.

연대집회를 가진 통일대행진단과 노동자들은 다음 목적지인 부평미군기지로 향하였다.

바람에 나부끼는 하얀 단일기가 부평시내를 수놓는다. 산곡동성당에서 연대집회를 마친 노동자와 통일대행진단은 2시 50분부터 1시간 가량 부평미군기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중앙행렬은 단일기를 흔들며 ≪주한미군 철수하자≫, ≪조국통일 완수하자≫를 외쳤고 몇몇은 지나가는 차와 시민들에게 준비해간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다.

1시간 가량의 거리행진을 마치고 부평미군기지 구 정문 옆 주차장에 도착한 일행은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평화통일을 위한 8.11 인간 띠잇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인천통일연대에서 주최하고 6.15남북공언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인천추진본부, 부평구청에서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시민단체, 학생, 노동자, 부평미군기지 인근에 사는 어린아이, 노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리했다.

개회사에서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한상옥본부장은 ≪시민단체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이 자리를 통해 미군기지 반환과 통일로 앞서가는 계기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성진인천시민운영위원장은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뜨거운 손을 맞잡고 싸워 미군기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드는 그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며 앞으로의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를 마친 후 행사에 참여한 5백여명의 사람들은 미군기지 주변 4㎞ 전구간을 9개의 구역으로 분담하여 손과 손을 맞잡는 띠잇기를 진행하였다.

인간띠잇기 행사에 참여한 이정심씨는 ≪16만평이라는 큰 땅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릴레이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평미군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정귀순씨는 ≪시민이니까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은 우리 땅이기에 돌려 받으려는 것이고 시 한가운데 미군기지가 있어 발전에 지장이 많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더 많은 시민이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 있을 집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인간띠잇기가 마무리 되어갈 무렵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주한군기지 정문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염원하는 솟대를 세우고 기지 안을 향해 ≪미군은 우리땅에서 물렀거라≫를 외치며 소금을 뿌렸다.

인간띠잇기가 40여분만에 성사되자 참가자들은 손을 맞잡고 다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이번 행사를 마쳤다.

한편, 인근 시민단체와 마을의 부녀회 등 부평일대 주민들은 부평미군기지 철거의 내용을 담은 160여개의 플랭카드를 손수 제작하여 행사가 끝난뒤 미군기지와 기지 앞 가로수에 걸기도 했다.

인천에 왔더니 피로가 풀리네요





통일대행진단 일정 막바지에 다다른 10일째 서군은 말 많고 탈 많은 인천에 도착했다. 대우 노조사태가 아직도 갈피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인천 입성은 말 그대로 통일대행진단에게는 중대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

≪횃불행렬≫과 함께 타오르다

매향리를 떠난 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났을까? ≪동지들, 다 왔습니다. 대열 맞춰 내리십시오≫라는 규율대장의 말에 따라 졸린 눈을 비비며 인천대에 도착. 어깨는 축 늘어지고 다들 기진맥진하다.

새벽 2시가 넘어 대학교 안에서 울려퍼지는 노랫소리. 뭔가 특별한 낌새가 느껴졌다. 학생회관으로 가는 길목을 도는 순간. 역시나 다를까? 길 양옆으로 쭉 늘어선 횃불행렬이 정신을 번쩍 나게 한다. ≪자,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통일대행진단 산하 범청학련 통일선봉대를 통일선봉대 찬가로 모셔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격도 있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생기 없는 모습은 온대 간데 없고 어느새 쩌렁 쩌렁한 목소리에 팔이 아파도 저절로 올라가는 기세찬 ≪팔뚝 질≫을 한다.

교통경찰의 보호아래 행진시작

인천 상경 이틀째인 11일 오전 지하철 선전전을 마친 통일대행진단 서군은 1시 사전마당으로 ≪한총련이적규정철회 및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규탄대회≫를 인천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갖고 이후 인천 검찰청항의방문 및 항의서한 전달을 위한 시내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날 검찰청방문은 사전마당 규탄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실천적인 의사표명을 위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부터 교통경찰의 인도적 보호아래 인천시민거리선전전을 동시에 펼쳤다.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한총련이적규정철회≫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한 대오는 석바위시장(인천광역시 남구 간석동) 근처에서 미리 준비중인 전경들과 부딪쳤다. 도로 외곽에 대열을 갖춘 통일대행진단은 횡단보도 길을 내어주거나 차편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승차장 공간을 만들면서 선전전을 펼쳤다.

방패로 찍고, 깃발도 찢고!

검찰청으로 가려는 행진단과 전경들간의 마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격해졌다. 기 싸움 차원에서 시작했던 눈싸움이 욕설로 끝에는 과격한 몸싸움으로 번졌다. 목포에서 시작해 수많은 시위를 전개했지만 통일대행진단과 전경들간의 이러한 격렬한 마찰은 그동안 찾아 볼 수 없었던 사건이었다. 특히 이날 전투경찰들은 방패로 맨몸의 학생들을 가격하고 대행진단의 깃발을 찢어 통일대행진단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에 경인총련중대장은 ≪한 단체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깃발을 찢고 무장 해지된 학생을 방패를 찍는 행위는



통일시대엔 있을 수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다≫라며 전경들의 행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맞대응한 우리쪽도 잘못은 있다≫고 말했다.

≪매향리≫ 멈추지 않는 폭격소리, 신명나는 사물놀이

지난 8일밤 늦게 매향리에 도착한 통일대행진단은 오전 12시 인근 아파트 가가호호 방문으로 매향리에서의 첫일정을 시작했다.

1시간여 동안의 가가호호 방문을 마친 통일대행진단은 다음 매향리 선착장으로 이동, 주민들에게 저녁에 있을 통일 한마당을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오후 8시부터 매향리 주민과 함께 하는≪통일 한마당≫ 행사가 매향리주민대책위 사무실 앞 무대에서 시작됐다 6.15예술단의 여는 공연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각 지역총학생회연합에서 준비한 장기자랑과 6.15예술단의 문예공연, 노래패 천리마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인사말에서 전만규매향리주민대책위위원장은 ≪힘차게 투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고 답사에서 문재룡통일대행진단서군단장의 ≪매향리주민 전체에게 통일대행진단의 연대의 마음을 박수로 전하자≫라는 외침에 학생들은 박수로써 고마움을 표시했다.

노래패 천리마의 공연시간에는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함께 춤을 추기도 했으며. 주민들은 통일대행진단 사이사이에 앉아 통일대행진단 측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공연을 관람했다. 행사를 지켜본 마을 주민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기분이 좋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행사가 진행 내내 하늘에서는 주한미군 폭격기에서 나는 기총소리가 들렸으며 대책위 사무실 주변에는 11시 30분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경찰들이 행사장 주위를 지키고 있었다.

통일대행진단은 마직막 순서로 주한미군 철조망 앞에서 촛불을 들고 결의 대회를 진행한 후 다음 행진도시인 인천으로 향했다.





전대기련 공동기자단 swpress1@hanmail.net

청주 용암동 망골공원에서 울린 통일합성

충북지역 통일대축전-27개 단체 참여

27개의 지역 종교, 학생, 노동자, 여성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충북지역 통일대축전≫이 11일, 청주 용암동 망골공원에서 ≪단이와 결이의 평양여행≫이라는 기치아래 열렸다.



푸른색 한반도기가 걸린 11일, 청주 용암동 망골공원

흐린 날씨로 하늘은 무거웠지만 참가자들은 7시로 예정된 충북지역 통일대축전 준비로 분주했다. 시민들에게 보여줄 공연의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이었고 금강산 남북노동자, 농민 통일대회 사진전시회, 조선일보구독거부 서명운동, 이북바로알기 선전전, 어린이 통일그림 전시회, 통일꽃만들기 등의 부대행사도 준비되고 있었다.

개막식과 함께 하늘에 걸린 통일무지개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충북지역 추진본부≫의 박덕규집행위원(원불교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은 충북지역 추진본부 노영호대표의 대회사로 이어졌다. 노영호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남과 북이 자주 만나면서 통일은 앞당겨 질 수 있다≫며 ≪7천만이 모두 염원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충북지역 추진본부 이연집행위원장과 청주대학교 인문대 김양희부학생회장의 ≪통일선언문≫ 낭독으로 개막식을 마무리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나선 통일감자≫

통일한마당(2부)의 차분한 진행은 KBS(청주)방송국 고은숙아나운서로 ≪시민과 함께 통일을 말한다≫라는 분위기를 더욱 돋우었다. 청주 수곡중학교 사물패의 풍물놀이로 시작한 통일한마당은 흥겨운 가락으로 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통일한마당 행사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한국예총 음성지부의 각설이 타령은 구수한 입담으로 웃음의 장을 만들었다. 각설이역를 맡았던 한국예총 음성지부의 주봉자선생은 ≪이런 행사에 우리 예술인도 함께 참여해 통일을 이야기했으면 한다≫며 ≪뜻 있는 행사에 함께 하게 되어 기분 좋다≫라고 밝혔다.

이후 6일부터 11일까지 청주 시내지역을 자전거로 달리며 통일을 선전해 냈던 통일알림이가 등장해 흥겨운 문선과 함께 더운 날씨 속에 1주일간의 통일 체험을 풀어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나선 통일감자≫라는 주제로 양키감자의 MD정책을 막아내고 통일을 이루는 남 · 북 감자 이야기 집체극이 있었다. 이 감자이야기는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손을 잡는 일이 중요함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통일한마당의 마지막 순서는 민족무예 경당의 통일기원 검무를 3명의 무사가 보여줬다.

2001-08-12 ⓒ 2001 유뉴스
전대기련 충북지부 pim299@hanmail.net



열린 행사 대전충남지역 통일축전 스케치

지나가는 시민들, 우리 같이 즐겨요!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해골에게 만신창이가 된 여학생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술렁였다. ≪아우, 징그러워!≫ 해골을 뒤집어 쓴 ≪국가보안법≫과 ≪조선일보≫, ≪이회창≫을 보고 길 가던 두 여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아래위로 훑어본다. 간간히 끌고가는 이들과 끌려가는 이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시민들은 그들을 유심히 쳐다본다. 이윽고 서로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두 명의 시민이 있었는데 끌려가는 여학생에게 ≪힘내세요!≫라고 작은 소리로 격려했다. 대전지역은 거리문화행사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때문에 퍼포먼스는 대전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가 되었다.

퍼포먼스를 맛보기로 지역통일대축전 선전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 아주머니가 대전 중앙시장 한 복판에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그리고 가게에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잠시 일 손을 놓고 간만에 만나는 풍물 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어본다. 대전의 중심가 ≪으능정이 거리≫에서 벌어지는 지역 통일축전에 시민들을 초대하기 위해 풍물패가 역과 도청사이를 한 바탕 돌고 있던 참이다. 7일간의 뜻 깊은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지역 통일순례단을 맞이하며 11일 늦은 오후즈음 시민들과 함께 통일 한마당이 벌어졌다. ≪자주통일 대장군≫과 ≪민족대단결 여장군≫을 앞세운 풍물패가 순회를 마치고 돌아오자 곧 행사가 시작되었다.

충청총련 문예단의 화려한 몸짓과 민중가요로 행사의 막이 올랐다. 지역 통일축전 준비위원장 김용우(민언련의장)씨는 ≪사상과 이념과 계층을 떠나 통일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며 시민들을 향한 선전과정으로서의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프로그램 중 단연 눈길을 끌었던 순서는 ≪통일노래한마당≫이었는데 이에 ≪청소년문화공간≫ 14기(고등2) 친구들과 대전 철도노조 노래패 ≪기적소리≫가 참가하여 연령과 계층을 초월한 통일에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국대 학생회에서는 만화 ≪개구리 왕눈이≫의 캐릭터들을 본떠 북미관계와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풍자해 관중들로부터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에서 있을 통일대축전에서 다시 한 번 무대에 오르게 된다고 한다.

한편, 본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선전거리에는 시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박광수씨 만화를 패러디한 조선일보, 미국, 한나라당 반대 선전물과 일제시대 일본 만행 및 그 이후 계속된 미국 만행 현장을 담은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었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거리에 전시된 사진들과 그외 선전물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중 미군에게 살해된 윤금이씨 사체사진과 일본인이 쥐고 있는 작두에 목이 잘린 노동자들의 사진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는데 시민들의 입에서 ≪미쳤어, 미쳤어≫, ≪말도 안돼≫라는 말이 연신 터져 나왔다. 부모님의 간단한 설명에도 사뭇 진지하게 선전물들을 살펴보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으며, 남자친구 어깨 뒤에서 사진을 보고 진저리 치는 젊은 연인들도 있었다. 한 여중생은 ≪광수생각≫을 패러디해 조선일보를 비난한 만화 한 편을 보고 ≪우리 집도 조선일보 보는데...≫라며 다소 무안해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통일티셔츠≫와 악세사리를 판매하느라 분주했다. 물건을 판매하던 행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티는 주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졸업한 선배들에게 판매되었지만, 핸드폰 줄과 책갈피 등 악세사리는 일반시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핸드폰 줄을 사들고 가던 한 젊은 남성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깔끔해서 좋아요. 친구한테 선물 해주려구요≫라며 즐거워했다.

예년과 달리 지역 통일축전을 시내 중심가에서 치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크다. 수배 생활 중인 충청총련 의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본인이 국가보안법에 걸린 수배자임을 밝히며 국가보안법철폐와 통일의 당위성 등을 인사말로 전하는가 하면 그들이 모이는 곳에 언제나 따라 다니던 전경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통일정세가 호전되고 국민들 사이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높아 진 것에 힘입은 것이다.

오는 8월 15일에는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에 박차를 가하는 ≪2001 민족통일대축전≫이 있을 예정이다. 이제는 통일운동도 온 국민이 함께 실천해야할 대중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1-08-13 12:10:00

전대기련 충남지부 bluefox58@hanmail.co.kr



통일염원 담은 615개의 풍선

2001 대구경북 민족통일대축전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2001 대구경북 민족통일대축전 본 행사가 시작됐다. 60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사회단체 대표들의 대회사가 진행됐다.

이어 주선국(KYC대표)씨는 ≪6.15 공동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조해 나가야 한다≫ 또한 ≪공동선언을 잊지않고, 서로의 욕심을 버려 다같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이어가자≫ 라고 말했다.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대구경북본부 의장인 한기명씨는 대구시민 통일선언문을 낭독이 이어졌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약속한 대장정이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이행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자≫라고 말했다.

본행사로 겨레통일대합창이 진행됐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던 어린이 민속단인 ≪전국 아름나라≫의 반갑습니다, 휘바람 등의 북녘가요 합창에 이어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수화로 부르기도 했다.

지켜보고 있던 김명섭(35)씨는 ≪행사를 지켜보면서 통일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면서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주한미군문제나 국가보안법 등의 통일분위기를 저해하는 문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인간띠잇기행사와 6.15공동선언이행을 의미하는 6백15개의 풍선을 날리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615개의 풍선을 날리며 참가자 모두가 통일의 열기로 한껏 분위기를 즐겼다.

2001-08-12

배진명기자 dondondonlove@hanmail.net ⓒ 2001 유뉴스

≪공동선언 실현, 반통일세력이 발목≫

경찰, 광주 ≪통일대축전≫ 도청 집회 거부…장내 진행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광주전남통일대축전≫이 전남도경찰청의 집회 불허로 통일대축전 추진본부와 집회장소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학생, 노동자 등 200여명은 중앙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2시간여 동안 ≪통일대축전 도청앞 허가≫를 요구하며 출동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행사 하루전인 10일 경찰측은 도심지역이어서 심한 교통체증을 빚을 수 있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청앞 집회불허≫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희태 광주전남통일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통일행사도 허가한 상태≫라며 ≪유독 광주만이 행사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도청은 항쟁의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통일의 광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는 ≪광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연합 등 300여명은 결국 6시경부터 광주YMCA 무진관에서 ≪청년학생통일축전≫과 ≪광주전남통일대축전≫을 개최했다.

≪공동선언실현 아직 멀기만하다≫

≪청년학생통일축전≫ 대회사에 나선 오기만광주전남청년학생추진위원회(이하 광전추위)공동대표는 ≪남북정상이 만난 후 수많은 변화를 피부 깊숙이 느끼고 있다≫며 ≪이제 남북해외의 청년학생들이 금강산에서 통일행사를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시기 통일운동은 정권의 탄압으로 선도적인 운동≫이었으나 ≪공동선언이 합의된 이후 조국통일은 대세가 되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 · 중앙 · 동아로 대표되는 반통일적 언론과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 반통일 세력들이 장애물임을 확인한다≫며 ≪6.15공동선언이 실현되기는 아직 멀기만하다≫고 주장했다.

≪청년학생통일축전≫ 참가자들은 ≪공동선언 실현에 발목을 잡는 세력과 국가보안법 등 장애물을 없애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청년학생통일축전≫에서는 ≪2001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파견할 대표단으로 김현성씨 등 3명에 대한 환송식을 가졌으며 대표단은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광주전남통일대축전≫은 광주시 각 구별 통일축전 ≪통일노래 한마당≫에서 입상한 12개팀이 참여한 경연대회로 통일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임동규광주전남통일대축전추진본부장은 ≪우리는 각 구별로 열린 통일축전을 성대하게 치르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해 가고자 시도민의 통일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제 머지않아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과 반통일세력의 행위라도 우리 손으로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08/13

강성관기자 rainbow@ohmynews.com



남측 8.15기념행사 풍성

올 남측의 8.15광복절 기념행사는 어느 해보다 풍성하다.

우선 남측의 통일운동세력들을 총망라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에서는 13,14일 이틀동안 ≪세계평화를 위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 국제회의≫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첫날 열리는 국제회의에는 백낙청(서울대)교수가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세계화를 위해≫라는 주제로, 부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시카고 대학)교수는 ≪The New Danger in Korea≫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둘째 날에는 이미경(민주당)국회의원이 ≪한반도 화해와 세계평화≫라는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학자로는 이철기(동국대)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대학원)원장, 박순성(동국대)교수, 정일용(연합뉴스)논설위원 등이, 해외학자로는 월든 벨로우(Walden Bello, Focus on the Global South)와 팀 사베지(Tim Savage, 노틸러스연구소) 연구원 등이 각각 주제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본부는 15일 오후 3시 여의도 한강둔치공원에서 기념식을 갖고 광복절 46돌을 기념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기념식에 앞서 10시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한 ≪통일단축마라톤≫을 진행하고 오후 4시부터는 통일노래자랑, 거리행진 등이 예정돼 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13일부터 통일대축전 전야제행사를 화려하게 펼친다.

13일에는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이적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오후 8시 연세대에서 문화한마당을 진행한다.

14일에는 오전 11시 탑골공원에서 ≪일본 군국주의부활저지, 역사왜곡규탄대회≫와 오후 3시 용산 미군기지앞에서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통일선봉단≫이 서울로 복귀해 합류할 예정이며 한총련 서울총학생회연합(서총련)의 ≪반미유인물 100만장 배포≫를 결산한다. 또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의 ≪전국 미군기지 순방단≫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합류할 계획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연세대에서 종교, 청년학생, 노동자 등 각 부분별 결의대회가 있으며 밤 10시부터는 모두가 결합한 ≪2001 통일연대 대축전≫이 연세대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의 행사가 다양하게 열린다.

11일에는 ≪서울통일연대≫가 11일 오후 4시부터 인사동 문화의 거리에서, ≪목포통일연대≫는 오후 7시 하당 평화광장 야외무대에서, ≪울산민족통일대축전 추진위원회≫는 오후 7시부터 문수경기장 야외공연장에서 기념대회와 문화공연, 시민노래자랑 등이 각각 열린다.

12일에는 ≪경기통일연대≫가 오후 6시부터 수원 효원공원에서 통일한마당을 진행하며, ≪인천통일연대≫는 오후 2시 부평역 광장에서, ≪용산.종로.중구지역≫은 오후 4시부터, ≪구로.금천.광명 통일연대≫는 오후 6시부터 시민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연다.

15일에는 ≪부천지역추진본부≫에서 오후 6시부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부천시민통일음악회≫를 열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을 주제로 열 예정이다.

이번 8.15행사의 특징에 대해 부천시민센터 이화자대표는 ≪올해는 지역에서 통일행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큰 특징이며 관변단체와 재야통일운동세력, 시민들이 참여해 하나의 대회를 치르는 것이 주목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올 8.15행사는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뉴스 2001-08-11
김명숙기자(mskim@tongilnews.com)

대행진단, 16박17일 일정 무사히 마쳐



16박17일의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다.

≪2001평화통일대행진단≫은 지난 달 27일부터 진행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강화도까지 동에서 서로 횡단하는 530킬로미터의 대장정을 무사히 끝내고, 10일 오후 2시 독립문공원에 도착해 해단식을 가졌다.

행진단은 환영나온 가족들을 만나자 그간의 무용담을 나누며 식사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웠다.

행진단은 해단식 중에도 사진을 함께 찍거나 조별 깃발에 글귀를 남기고,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돌리는 등 이별의 아쉬움을 나눴다.

또한 행진단 전체는 10미터 정도의 천에 먹물 묻힌 발바닥 도장을 찍으면서 행진중에 가장 고생한 발바닥을 기념으로 남기기도 했다.

이번 행사 준비팀인 박영중통일맞이조직부간사는 ≪이번 대행진단이 날씨 관계로 휴전선 일대와 민통선을 도보로 가지 못해, 분단된 상황과 조국의 산천을 직접 접할 기회를 많이 못 가진 게 아쉽다≫면서 ≪참가자들이 이번 대행진을 통해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중간사는 ≪아직 대행진은 끝난게 아니라 계속 진행중에 있다≫면서 ≪이번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진에서 빠진 판문점을 10월중에, 그리고 백령도는 겨울에 MT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환기자(khlee@tongilnews.com)
통일뉴스

경북대에서 ≪주체사상 대토론회≫ 열려

≪금기를 넘어 민족을 이해하자!≫



금기를 넘어 민족을 이해하자!

통일시대를 맞이해 북한을 바로 알자는 취지의 ≪주체사상 대토론회≫가 경북대 총학생회 주최로 8일 오후 3시 경북대 전자계산소 세미나실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대영(민주주의 민족통일 대경연합 정책위원장)사회자는 ≪이 토론회가 학술적 토론이 아닌 실천적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단순히 주체사상 토론만이 아닌 6.15공동선언의 실천문제로까지 나아가자≫고 토론회의 방향을 이끌었다.

첫 순서에 나선 김남식(통일뉴스)상임고문은 ≪주체사상의 형성과 발전과정≫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항일투쟁과정인 1930년 카륜회의에서 첫 제시한 이래 해방후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발전.완성되다가, 1974년 수령의 후계자로 추대된 **김정일**에 의해 보다 이론적으로 체계화.정식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심화.발전해 가는 사상이론≫이라고 평가했다.

김남식상임고문은 특히 주체사상에서 주체는 바로 인민대중인데 ≪인민대중이 참된 자주적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수령-당-대중의 전일적 관계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재구(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씨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북 동포들의 사상적 기초로 된 주체사상을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이 제멋대로 굴곡해서 선전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북 사람들이 삶의 기초로 삼고 있는 주체사상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구씨는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인간의 운명 문제에 둠으로써 인간중심의 철학이 되는 것이라면서, 그 근본원리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를 정립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교수는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주체사상에 대한 접근방법으로는 철학적 측면과 사회역사 발전측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특히 후자인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살피면서 주체사상이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다.

강정구교수는 북한정권의 성격을 ≪민족성, 민중성, 정통성, 주체성≫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뒤, ≪50년대에서부터 정립되어온 토대 속에서 이북의 주체사상은 완성될 수가 있었고, 사회전반을 주체사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토론에서 서옥렬(비전향장기수)씨는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는 결별을 한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 창발적인 주체사상이 태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옥렬씨는 그간 남한에서의 통일 및 북한과 관련된 세뇌교육의 폐해를 지적한 뒤 ≪주체사상을 학문으로서만 연구해서는 안되며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온 그대로를 체계적으로 재현한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용(상신브레이크)노조위원장은 ≪노동자가 계급문제와 분단문제 간의 어려움에서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지 못한다≫면서 노동자가 통일운동에 나서지 못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대용위원장은 ≪분단문제가 노동자의 삶의 문제로 직결이 안되고 있다. 일제시대때는 해방이 되면 이러저러하게 잘 살게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통일이 되면 이러저러하게 잘 살게 된다고 연결이 잘 안된다≫면서, 이는 노동자가 아직 반북이데올로기에 젖어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과 북한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와 주제토론에 이어 보충발언에서 김남식상임고문은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유독 남한에서만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주체사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남한학계에 일침을 가했다.

또한 안재구씨는 ≪현재 주체사상은 70개 나라 1000여개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주체사상이 북한만의 사상이 아니라 자주시대의 사상임을 부각시켰다.

강정구교수도 보충발언을 통해 주체사상이 금기시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기본 자유이며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신봉하거나 익숙해 있는 주체사상을 알아야 하며 △주체사상을 통일후 수용하든 비판하든 이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이자 그 사회의 흐름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지 지금 예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서면질의를 통해 ≪북한의 수령중심주의 사회는 전제주의이고 일당국가는 독재주의 아닌가≫, ≪북한의 공식명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없지 않느냐≫, ≪북한은 투표에서 만장일치가 많은데 이는 무슨 뜻인가≫, ≪주체사상이 국제적인 것인가 북한만의 것인가≫, ≪주체사상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주체사상을 갖고 역사와 세계를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질의응답에서 안재구씨는 ≪북한은 인민들의 요구와 이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데, 이를 집단주의의 한 표상이라 지적하면서 따라서 집단주의와 전제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김남식상임고문은 ≪북한 사회주의 이해를 위해 반드시 전제할 것이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는 상상외의 외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서 ≪주체사상을 갖고 역사와 세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지금은 특정 계급의 시대가 아닌 민중의 시대≫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경북대 김정희(국어교육과 95)부총학생회장은 토론회 취지에 대해 ≪6.15공동선언 이후 통일시대를 맞이한 지금 누구나 통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곁가지로가 아니라 주체사상을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금기를 깨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희부총학생회장은 서울대 주체사상 토론회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학자들이 나왔고, 고려대에서는 너무 이론적이고 현학적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우리 학교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론적 이되 쉽게 현실로 다가갈 수 있도록 컨셉을 짰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는 4시간여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참석자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또 발제자들도 참석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끝까지 성심껏 응답해 주는 등 시종 열띠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북대에서의 주체사상 토론회는 공개적으로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 네 번째로, 지방에서는 첫 번째로 열린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를 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통일뉴스 2001-08-09
이계환기자(khlee@tongilnews.com)

금강산관광사업 가로 막는 미국을 비난

조선아태위 대변인 성명



(평양 8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미행정부가 남조선이 우리와 하는 협력사업에 차단봉을 내리우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해 나서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8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미행정부는 그 누구의 ≪미싸일위협≫이니,≪상용무기위협≫이니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인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행위는 금강산관광사업을 부진상태에로 몰아 넣어 파탄시키려는 책동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원래 금강산관광사업은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소망을 풀어 주고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지름길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과 동포애적대용단에 의해 마련되였으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남조선 현대그룹사이에 민간급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였다.

그렇게 되여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내외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격폐된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열기를 불러 일으키는 민족적인 사업으로 전환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력사적인 북남수뇌분들의 평양상봉이 마련되였으며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게 되였다.

이것은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으로서 온 겨레는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이처럼 금강산관광사업은 단순한 관광사업이 아니라 현 북남관계발전의 기초로,출발점으로 되였으며 전 민족공동의 사업으로 되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미국은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달가와하지 않았다.

더우기 미국에서 부쉬행정부가 서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가로 막기 위한 책동은 최절정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였다.

그들은 우리가 관광대가를 ≪군사적목적에 리용≫한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을 오도하였고 그 신빙성을 부여 하기 위하여 우리가 관광대가를 ≪미싸일개발에 리용≫한다느니 우리의 ≪위협이 지난해 보다 더욱 심각해 졌다≫느니 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반대하는 대대적인 깜빠니야를 벌리였다.

미국의 국무성과 정보계,군부우두머리들은 남조선의 관계자들을 불러 대며 금강산관광문제를 놓고 압력을 가하고 온갖 방해책동을 다 하였으며 금강산관광을 포기하도록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특히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을 비롯한 군사우두머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진실한 념원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맡아 나선 현대그룹에 로골적인 압력과 횡포한 간섭책동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현대그룹이 경영난을 겪는 기회를 리용하여 어떤 회사들은 강매의 방법으로 먹어 치우기도 하고 다른 회사들은 채권단에 넘기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대그룹자체를 해체하게 하고 여러 계렬사들이 관광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한편 미국은 남조선의 일부 우익보수세력과 반동언론들이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비방중상하면서 이를 방해하도록 부추기였다.

미국의 부추김밑에 남조선의 일부 우익보수세력들은 관광사업에 ≪수익성이 없는 적자사업≫이니 ≪퍼주기식 사업≫이니 하는 각종 딱지를 붙여 비난하다 못해 금강산관광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해 별의별 시도를 다 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이야 말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도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협력사업도 우리 민족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진척시켜 나가는데 기본장애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남사이에 진행하는 민족적인 사업을 가로 막아 나서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시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미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금강산관광사업을 집요하게 방해하여 나선다면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항의에 부닥치게 될것이며 그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 지역 주민들과 인간띠잇기 행사 벌여



인천광역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부평미군기지를 에워싸고 반환을 요구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벌였다.

8.15를 며칠 앞둔 11일 오후에 열린 ≪인간띠잇기≫ 행사는 부평구청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추진본부)≫의 후원과 그 동안 부평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선언본부)≫와 ≪인천시민회의≫ 주관으로 지역 주민 2천 여명이 한데 어우러져 진행됐다.

이날은 참가자 2천 여명을 중심으로 한반도 깃발과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요구가 적힌 현수막을 이어 3.7Km둘레의 부평미군기지를 에워쌌다.



이 행사에 대해 선언본부 한상욱본부장은 ≪부평미군기지 앞에서 433일의 농성과 시민감시단 활동의 성과가 모여 주민들과 함께 오늘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경과를 밝히고 ≪각 구마다 벌였던 통일행사에 1천 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아파트 입구에 미군기지 반환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거는 등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의 통일정서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상욱본부장은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미군기지 내 폐차장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와 무적차량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으며, 기지 내에 군인이 거의 살지 않는 사실을 밝혀내고 국방부에 이 결과를 통보해 반환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언본부는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내 인천광역시의 각 구와 동을 순회하며 주민노래자랑, 6.15m김밥말기, 영화감상, 북한 사진전, 길거리 농구대회, 무료검진, 불소도포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선언본부 안창현대변인은 ≪처음에는 6.15공동선언에 대해 일반시민들이 잘 몰랐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확대되는 기회가 됐으며 부평미군기지 반환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인간띠잇기≫ 행사를 지켜보던 부평미군기지 주변 아파트에 산다는 김선자(부평 현대아파트, 50)씨는 ≪몰랐던 내용을 이런 기회를 통해 배우게 된다≫며 ≪부평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도 미군기지가 없어지고 공원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다.

통일뉴스 2001-08-11
김명숙기자(mskim@tongilnews.com)

≪8.15사면 없음을 규탄한다≫

8.15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정치수배해제와 양심수석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면을 거론하지 않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국민연대)≫와 국가보안법 피해자 가족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오전 청와대가 바라다 보이는 미대사관 옆 시민공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연대는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연대는 기지회견문에서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들은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이며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 구속수배되어 형극의 길을 걷고 있다≫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 국보법을 즉각 폐지하고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하고 수배해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전향장기수 송환대책위원회 권오헌 위원장은 ≪해마다 있었던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번번히 양심수사면을 미루는 것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정부가 양심수와 정치수배자를 그대로 둔 채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현재 국민연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심수는 179명, 정치수배자는 148명으로 이 중에는 환갑이 넘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나창순고문(68, 99년 방북)과 중병을 앓고 있는 박경순(영남위사건으로 7년 실형)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 관계자는 ≪적어도 환자와 노인은 조건없이 당장 석방해야 하며 대통령도 평양을 다녀왔는데 방북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명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시민사회단체의 바램과는 달리, 검찰은 현재 한총련 9기 대의원을 긴급 수배하고 연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국민연대와 한국대학교총학생회학부모협의회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청와대 근처에서 8.15사면을 요구화는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통일뉴스 2001-08-13
김명숙기자(mskim@tongilnews.com)



≪부도덕한 탈세자는 상아탑을 떠나라≫

고대 · 연대 학생대표102인 김병관, 방우영 사퇴 촉구

≪몇 백억의 세금을 포탈한 최고 경영자가 버젓이 학교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현황이 과연 건전한 사학의 모습인가? 이 부정비리 인사들은 자신들의 행적을 반성하고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 그 운영의 요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언론사 세무조사로 인한 언론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 김병관전명예회장과 조선일보 방우영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려대, 연세대 학생 대표자들이 이들의 정당한 법집행과 이사장직 사퇴를 촉구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고려대 부총학생회장 정우성(97)씨와 연세대 총학생회장 장정규(97)씨는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양대학 과, 동아리, 단과대, 총학생회등의 학생대표자 102인이 선언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신문개혁촉구와 조선일보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사립대학의 학교운영이 재단 이사회, 그 중에서도 이사장의 직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들 세무비리의 총 책임자들이 아직도 학교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 상황은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현주소를 역설해 주고 있다≫며 ≪그들이 운영하는 신문사가 그만큼의 부정부패를 저지른 현실에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양 이사장이 언론사를 통해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한 여론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며 ≪탈세자와 교육자의 자질도 구분하지 못하는 학교가 기여입학제 도입과 그 대가로 대대손손 입학증을 내주어 세계 100위권 대학규모의 자금이 확보된다고 과연 학교가 발전할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이들은 앞으로 학내 조선일보 반대모임 단체들과 연대해 학생들은 물론 대학가 지역시민을 중심으로 ≪조선일보 구독중지≫를 위한 여론화작업과, 조선일보반대를 위한 전국대학생 모임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양 대학학생들은 지난달부터 조선일보사 앞에서 ≪조선일보 반대≫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1-08-07 ⓒ 2001 유뉴스
박정미기자 josuna@unews.co.kr

선언자 명단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장정규총학생회장 / 김현정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 김이학실 총여학생회 회장 / 김김진선 총여학생회 부회장

≪문과대학≫ 김수영 문과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문설희 문과대학학생회 부학생회장 / 박재희 문과대학 영문 · 3반 학생회 학생회장 / 송경화 문과대학 독문 · 4반 학생회 학생회장 / 김성희 문과대학 독문 · 4반 학생회 부학생회장 / 최용민 문과대학 불문 · 5반 학생회 학생회장 / 박태현 문과대학 불문 · 5반 학회 ≪민들레≫회장 / 김윤정 문과대학 불문 · 5반 학회 ≪농담≫회장 / 정민우 문과대학 노문 · 6반 학생회 학생회장 / 장미현 문과대학 사회 · 10반 학생회 학생회장 / 백은화 문과대학 사회 · 10빈 노래모임 ≪둥지≫회장 / 정선옥 문과대학 율동패 ≪발버둥≫회장 / 이진영 문과대학 언론비평동아리 ≪우리사회바로보기반≫부회장

≪상경대학≫ 임덕영 상경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류주열 상경대학학생회 부학생회장 / 이상훈 상경대학 7반 학생회 부학생회장 / 이상원 상경대학 풍물패 ≪덩더쿵≫회장

≪이과대학≫ 박수 이과대학 화학 · 자과 2반 학생회 학생회장 / 성세현 이과대학 2반 노래패 ≪노래연≫ 회장 / 김상태 이과대학 풍물패 ≪한얼≫회장 / 안진희 이과대학 노래패 ≪청년≫회장

≪공과대학≫ 홍석환 공과대학 공학4반 학생회 학생회장 / 정재욱 공과대학 전파 · 기전 · 공학9반 학생회 학생회장 / 이혜영 공과대학 풍물패 ≪신명≫회장

≪신과대학≫ 김효성 신과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전성민 신과대학 ≪연세신학학술연구회≫회장

≪사회과학대학≫ 김정숙 사회과학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정성목 사회과학대학 4반 학생회 학생회장 / 이종석 사회과학대학 5반 학생회 학생회장 / 옥나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학생회 학생회장 / 민유기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생회 학생회장 / 김재광 사회과학대학 노래패 ≪늘푸른소리≫회장

≪법과대학≫ 김병곤 법과대학학생회 학생회장

≪교과대학≫ 박광호 교육과학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박영민 교육과학대학 교육 · 13반 학생회 부학생회장 /

≪음악대학≫ 김대수 음악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권우경 음악대학학생회 부학생회장

≪의과대학≫ 박찬왕 의과대학학생회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김진숙 동아리연합회 회장 / 김현식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문지범 중앙동아리 ≪만화사랑≫회장 / 심화윤 중앙동아리 ≪증산도≫회장 / 김경훈 중앙동아리 ≪유포니아≫회장 / 백승민 중앙동아리 ≪뉴맨≫회장 / 박명숙 중앙동아리 ≪스킨스쿠바≫회장 / 심연희 중앙동아리 ≪게르니카≫회장 / 김영일 중앙동아리 ≪늘품≫회장 / 윤지로 중앙동아리 ≪배움터≫회장 / 유은진 중앙동아리 ≪목하회≫회장 / 유석민 중앙동아리 ≪기우회≫회장 / 김정래 중앙동아리 ≪우리역사회≫회장 / 최원준 중앙동아리 ≪로타랙트≫회장 / 민선윤 중앙동아리 ≪다살이살판≫회장 / 이재경 중앙동아리 ≪오르페우스≫회장 / 류보라 중앙동아리 ≪S.C.A≫회장 / 이용욱 중앙동아리 ≪원불교학생회≫회장

≪기타 단위≫ 임이택 풍물패협의회 의장 / 오승훈 조선일보반대연세인모임 대표

이상 62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김지은총학생회장 / 정우성부총학생회장

≪문과대학≫ 문성훈 문과대학 철학 · 인문5반 학생회 학생회장 / 김성광 문과대학 한국사 · 인문3반 학생회 학생회장 / 박창규 문과대학 인문7반 학생회 학생회장 / 정현민 문과대학 사회과학학과 월담 회장 / 김형규 문과대학 독문과 사과반 회장 / 김원식 문과대학 중문과 사름혜음 회장

≪사범대학≫ 김민재 사범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김슬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생회 학생회장 / 전경식 사범대학 체육교육과학생회 학생회장 / 김종현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체조부 주장 / 윤참 사범대학 미술학부 학생회장

≪이과대학≫ 안명환 이과대학학생회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임현철 동아리연합회 회장 / 김도연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조기훈 동아리연합회 생활문화분과장 / 최창원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회장 / 강혜정 중앙동아리 극예술연구회 회장 / 이수연 중앙동아리 고대농악대 총무

≪생명환경과학대학≫ 이행섭 생명환경과학대학학생회 학생회장 / 김민우 생명환경과학대학 상록패 회장 / 김홍근 생명환경과학대학 식자과 우금치 회장

≪생명과학부≫장원정 생명과학부학생회 학생회장 / 홍승기 생명과학부 율동패 회장

≪법과대학≫ 이환범 법과대학 B반 학생회 학생회장 / 김경민 법과대학 법률운동학회 틀 회장

≪경영대학≫ 라인천 경영대학 D반 학생회 학생회장

≪정경대학≫ 백상진 정경대학 정외 · 정경1반 학생회 학생회장 / 이동인 정경대학 경제 · 정경23반 학생회 학생회장 / 김성훈 정경대학 신방 · 정경4반 학생회 학생회장 / 송면 정경대학 통계학과 학생회장 / 김정환 정경대학 경제사회학회 회장 / 김기화 정경대학 한국사연구회 학회장 / 김대현 정경대학 뿌리내리기 학회장 / 신혜현 정경대학 정경학부 문예패 돌개바람 회장

≪기타 단위≫ 김태환 애기능생활과학도서관장 / 박근일 고대방송국 국장 / 신미정 고대문화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강영준 조선일보반대고대인모임 대표

이상 40명 **총 102명**

≪우리는 조선일보 입사를 거부한다≫

전국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단 11인 신문개혁 촉구

대학가가 순풍에 돛 단 듯 연이어≫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 실천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달 7월 18일 각 대학내 ≪조선일보 반대 모임≫과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 1차로≫조선일보 구독거부 대학생 8031인 선언≫을 한데이어 지난 7일은 동아일보 김병관 전명예회장,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 연대 학생회장단 102명이 2차선언문을 통해 ≪부도덕한 탈세자는 상아탑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오늘(8)은 전국신문방송학과(신방과) 학생회장단 11인이 서울 한국언론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3차 조선일보 반대와 신문개혁 촉구 대학생 선언을 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에서 동아대 신방과 학생회장 이상현씨는 선언문을 통해 ≪오늘은 고발된 비리사주가 소환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전국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족벌체제를 형성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비리까지 저지른 언론사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언론의 미래는 없으며 동시에 사회개혁도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언론인으로서 ≪회생불능의 중환자 상태에 있는 조선일보 입사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전국 신방과 학생들이 조선일보를 보지 않는것은 물론 인력재생산 구도를 과감히 끊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각 대학내 조선일보 반대모임, 전대기련 등 언론개혁에 뜻을 둔 단체와 연대해 △전국 신문방송학과 학생 전원 조선일보 입사거부 선언운동 확대 △2학기 각 대학 학술제 조선일보 반대와 신문개혁을 주제로한 토론회개최 △정기간행물법 개정촉구 운동동참 등을 통해 대학사회전체에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 열풍을 주도할 계획이다.

한편, 2학기 개강과 함께 대학사회 전체구성원이 언론개혁 화두로 들끓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선언이 연속성을 가져야하고, 대학내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단체나 이미 조직된 단체들이 자치활동을 활발히 하는것은 물론 조선일보 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범 대학생조직이 발족돼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1-08-08 13:35:00 ⓒ 2001 유뉴스
박정미 기자 josuna@unews.co.kr



≪선언 참가 대학≫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김성훈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학생회장 박관영
광운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문미선
대구효성가톨리대 사회매체학부 학생회장 권유경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박선영
동아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이상현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김연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고은상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차기현, 우종국, 전주영, 김동욱, 최익준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정건영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학생회장 권희성
이상 가나다순

≪고이즈미총리 규탄≫ 천여명 반일시위

오늘 서울시내 곳곳 반일집회… 한총련 8백여명 참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신사참배강행에 전국민적 저항이 일고 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시내 곳곳에서는 일본규탄시위가 이어졌다.

전국연합, 한총련, 민주노총 등 44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연대(공동대표 한상렬)≫는 ≪민족통일대축전≫행사의 하나로 ≪일본군국주의 부활및 역사왜곡규탄≫시위를 진행,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규탄했다.

시위에 참여한 요시마스 시게루(한일민중연대 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씨는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유는 딱 두가지다. 하나는 고이즈미가 일본의 조선반도침략전쟁을 미화하기 위한 것이고 두번째는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민중들도 두번다시 아시아에서의 침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문구 녹색어머니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등 12개 단체도 이날 오전 청량리역광장에 5백여명이 모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밖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일제강제연행 한국생존자협회(회장 선태수),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사무처장 박찬성)도 신사참배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승인에 항의하는 캠페이 및 시위를 벌인다.

이밖에 독도찾기 운동본부(위원장 김봉우)도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독도찾기 캠페인을 서울 인사동 한빛은행앞에서 진행한다.



2001-08-14 12:32:00 ⓒ 2001 유뉴스
박정미기자 josuna@unews.co.kr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를 위한 국민대회

8월13일. 통일대축전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 오후 4시 서대문 공원에서는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통일연대가 주관하고 범민련, 한총련이 주최하는 이 행사에 많은 한총련 학생들이 참가하여 현재 한총련 9기대의원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었다.

범민련 이종린의장의 대회사와 권오헌민가협의장의 정치연설에 어이 우리나라의 문화공연이 이어졌고, 강총련의장의 결의문낭독으로 짧은 집회를 마치고, 연세대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하였다.



결의문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마침내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못 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새 세기 첫 광복절 삼천리 강산에 민족통일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올해는 특히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남북민중이 만나 하루빨리 통일하자며 같은 민족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눈물도 흘렸다. 또한 이제 매년 광복절을 맞아 진행되는 통일행사도 남북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조국통일을 이제 법으로도 제도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으며 눈앞의 현실로 되어가고 있다.

허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엔 아직도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젊은 대학생 수백여명이 정치수배로 결박당하고 통일운동은 여전히 범죄시되며 심지어는 이적단체로 매도되고 있다.

이에 수많은 각계 사회단체는 물론 사회 저명인사, 국회의원가지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거센 항의를 하고 있다.

범민련과 한총련은 절대로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국통일이 눈앞에 놓인 지금 민족이 이로운 길로 간다는 것에 어떤 법으로도 제도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범민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이 세상을 무법천지로, 인권몰락지대로 만들고 있다.

악법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끝내 말살하고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의 가슴아픈 현실이다.

검찰과 경찰은 애국단체 범민련 한총련을 이적단체라며 탄압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도대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자는 검찰과 경찰이 맞는가! 세상이 변하는 줄 모르는 눈뜬 장님이 아니고서야 이 땅의 민주도 통일도 이토록 가로막아 나설 순 없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거센 지탄과 항의를 면하고 싶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 범민련 한총련등 이적규정을 즉각 철회하고 수백명의 한총련대학생들에 수배조치를 해제한다면 생각해 볼일이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은 국가보안법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통일시대 반통일집단에게는 둘도 없는 애지중지 소중한 법일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에게는 참으로 거추장스러운 법 중에 최고의 악법일 수밖에 없다.

온 국민이 나서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물론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민족염원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통일의 걸림돌에 막혀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민족이 이로운 길로만 전진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2001년 8월13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기자 : 방송국 / 작성일 : 2001-08-13

이회창의 대전강연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청총련 경고문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회창의 대전에서의 강연을 용납할 수 없다



8월 8일 이회창이 대전에 온다는 비보를 접하고 대전시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착잡한 마음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게릴라성 폭우로 모든 국민이 비피해로 근심걱정이 쌓여가고 있는 지금!

마치 게릴라처럼!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대전에 들어와 강연을 한다는 이야기에 낯짝도 그만하면 철갑선을 만들만큼 두껍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 입에서 무슨 도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다고 거창하게 강연인가!

입만 열면 반통일적 발언! 입만 열면 반교육적 발언! 입만 열면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불타 입만 열면 반민주적 발언! 입만 열면 이리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인면수심의 발언을 일삼는 그에게 4천만 국민은 등을 돌린 지 오래이다.

김영삼과 더불어 국민을 상대로 희대의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는 그에게 4천만 국민이 등돌린 것도 모자라 7천만 겨레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남과 북이 서로 거족적인 민족공동통일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려 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는 정부, 정당, 진보적 운동단체와 종교단체를 비롯 온갖 사회단체가 망라되어 통일축전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심은 이렇게 향해 가는데 반통일적 발언만을 일삼는 백발마귀 이회창은 여전히 북을 동포로 생각지 아니하고 주적으로 여기며 온갖 방해 책동을 일삼고 있다.

온 국민이 조선일보의 반통일, 반민주, 정권과 재벌에 나팔수로의 역할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는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 수구보수 언론을 비호하며 언론탄압이라며 여당공격의 빌미로 삼아 자신의 정권쟁취의 수단으로 삼으려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내민족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이회창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뺏지의 의미일텐데 민족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이회창! 그의 모습이다.

그의 행보가 이러한바!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독극물과 같은 이야기라 확신하며 우리 청년학생들은 대전시민들과 함께 이회창의 대전에서의 강연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회창은 즉시 대전행 티켓을 취소하고 자신의 삶과 행보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며 온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대전에서의 강연을 기어코 강행하려 한다면 충청총련 15만 청춘은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대단결하고 있는 대전,충남 애국시민들과 함께 이회창의 강연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히 단죄할 것며 이회창은 최근 ≪이회창 스토커≫라 이야기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저력(?)을 온몸으로 만끽하게 될 것이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자주, 민주, 통일의 정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역행하고 저지하려는 행위는 언제이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진리이다.

이회창은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고 민족과 국민의 편으로 설 때만이 강연다운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청년학생들의 엄중한 경고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8기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문화제 불허방침에 대한 규탄 성명서

작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통일을 다짐하는 행사를 갖고,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열리는 815민족통일대축전에서는 300명의 각계각층 대표들이 방북을 하여 공동행사를 갖는 등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통일을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의 철폐와 함께 사사건건 부당한 내정간섭을 저지르며 통일을 방해해온 미국에 대한 마땅한 응징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며, 50년이 넘게 수도 서울의 한복판을 점거하면서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주권국가의 자존심을 짓밟아 온 용산미군기지를 반환 받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로 어이없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8월13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문화제≫를 불허하겠다는 통보가 바로 그것이다.

그 문화제 불허의 이유가 가관이다.

≪폭력 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허의 이유이다. 그것도 유독 용산미군기지 앞에서의 집회와 문화제만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곳에서의 집회나 문화제는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것인가? 만일 문화제에서 폭력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그 때 적절한 법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폭력 운운하면서 허가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50년이 넘게 우리 땅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국에게 자주적인 대응은커녕, 자존심 따위는 집어던지고 오직 사대와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며, 우리 나라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의 반증이외에 무엇이 될 수 있겠는가?

용산미군기지가 어떤 곳인가? 우리나라의 수도 한복판에 자리잡고, 50년이 넘게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한강물에 독극물을 방류하고, 폐유를 방류하는 등 각종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미군기지이다. 또한 최근 밝혀지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또한 심각한 지경에 다달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데, 여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한미군측에 항의를 하고,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함과 동시에 책임자를 처벌하고, 각종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화제에 대한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행위는 그야말로 사대적이고 매국적인 일이다.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주≫의 정신이다. 즉,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스스로 통일을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미국은 MD를 강요하며 남과 북 사이에 조성된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자주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의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에서도 드러나듯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도 될 것이란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한다. 이제 정부는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올바로 파악하고, 주체적인 입장에서 불평등한 한-미간의 각종 협정 등을 개정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로 대미관계를 형성해 가야 한다. 그리고,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미군기지들을 조속히 반환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문화제 불허방침을 비롯한 사대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우리땅 미군기지들을 되찾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1년 8월 12일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시민문화제 준비위원회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공동대책위원회 / 녹색연합 / SOFA 개정국민행동 / 민주노동당 / 민족화해 자주통일협의회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자주민주통일노학선봉대

애국순천향 13-15투쟁

승리의 확신으로 8월을 통일의 바다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충청총련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약하고 부끄럽지만 동지에 대한 의리와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공동선언 이행의 기치를 들고 8월 13일-15일
애국 순천향이 선두에서 투쟁의 불바람을 일궈내겠다는 각오로 투쟁 계획서를 동지들게 드립니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끝장을 보자! 애국 순천향 13~15일 투쟁계획서

한총련은 구속과 수배,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역사와 민족앞에 한치의 부끄럼없이 투쟁해 왔었습니다.

지난 해 역사적인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한총련은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정세에 따라 강령을 개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의원들에 대한 연행소식이 한총련 홈페이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합법화를 위해 충청총련대의원들이 조사투쟁을 벌이고자 출두한지 벌써 오늘로 18일째입니다.

8명의 대의원 중 6명의 대의원들은 불구속으로 나오셨지만, 2명의 대의원들께서는 말도 안되는 수사를 받으며 아직도 독방에 갇혀 계십니다.

물론 불구속으로 나오신 6명의 대의원들도 언제 다시 소환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신념이란 것이 무엇인지 저들에게 그리고 우리 새내기들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총학생회장님의 말씀과 손바닥에 쓰여진 ≪낙관≫이라는 두글자를 애국 순천향 일꾼들은 심장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지 않은 많은 오류가 있기도 하였지만 구속을 각오하고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 밝은 웃음띄며 밖에 있는 동지들에게 힘있는 투쟁 부탁하며 자신 스스로도 투쟁을 결의하며 총학생회장님께서 출두하신지 18일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천안보안수사대의 말도 안되는 거짓말과 협박, 늦어지는 검찰 조사, 거기에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고자 발악하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졸업생과 후배들에게 이어지는 소환과 부모님들에게까지 이어지는 협박들..

그들이 하루하루 연명시켜왔던 국가보안법이 이제는 정말 목숨이 다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장을 보려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가 아닌 정말 몸으로 실천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목줄을 이제 애국 순천향이 끊어 버리겠습니다.

애국의 열정 승리의 확신 충청총련 산하
애국 순천향 17대 백두대간 총학생회

애국 순천향 13~15일 투쟁 계획

1. 대검찰청 앞 1인시위, 선전전

○ 투쟁 일시 : 8월 13일 오후 12시부터
○ 투쟁 장소 : 서울 대검찰청 앞 1인시위, 검찰청 지하철역(2호선 교대역) 앞 선전전

2. 지하철 1인시위

○ 투쟁 일시 : 8월 13일 오후 12시부터
○ 투쟁 장소 : 서울 지하철역 곳곳

3. 탄원운동, 1만인 선언운동 가판 설치

○ 투쟁 일시 : 8월 13~15일
○ 투쟁 장소 : 연세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4. 모금운동 및 재정사업

○ 투쟁 일시 : 8월 13~14일
○ 투쟁 장소 : 연세대

미약하지만 애국 순천향이 13일 투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서울 곳곳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선언 이행의 바람을 일으키며 연세대로 가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 끝장을 보아야합니다!

6.15공동선언이행!
통일시대 역행하는 국가보안법완전철폐!
한총련합법화쟁취!
구속대의원 구출!



6.15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임무

지난 해 감격적인 평양상봉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는 7천만 겨레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변혁운동대오는 새로운 일대비약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반면에 내외 반통일세력은 정치적으로 만회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단상황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온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행각은 갈수록 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의 배후조종하에, 김영삼과 이회창, 조선일보와 국정원, 반통일정상배들은 반북음해모략에 국가보안법철폐 반대, 각종 조직사건 조작 등 온갖 반통일행각을 자행하며 통일열기에 끼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에서 선봉으로 나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각각 연세대와 건국대 학생들이 이회창을, 고려대 학생들이 김영삼을 신성한 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올해 충청총련에서도 김영삼강연을 반대하는 투쟁을 당차게 진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이회창강연을 사전에 좌절시킨 바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청년학생을 비롯한 애국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이회창방문에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반북모략지인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투쟁과 반민주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줄기차게 전개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 이후 발악적으로 준동하는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으며 이는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우리 청년학생들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을 분쇄하는 반미자주화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최근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로 나서고 있는 이회창을 타격하는 투쟁과 반조선일보투쟁을 적극 결합시켜 힘차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회창은 친일검사보의 아들로서 과거 박정희군사정권 당시 민족일보 조용수사장을 사형시킨 파쇼적인 판사였으며 김영삼정권에서는 국무총리를 해먹으며 경제신탁통치를 야기하였고 이른바 <총풍사건>이니 <세풍사건>이니 하는 갖은 비리를 다 저지른 놈입니다. 더욱이 현정권 들어서는 6.15공동선언이후 통일대세에 역행하며 <시기상조론>이니 <연방제불가론>이니 하면 내외 반통일세력의 대표격으로 온갖 망발과 악행을 일삼은 자입니다. 지난 기간 김영삼이 전민중적 규탄투쟁으로 정치적 반신불수가 되고 대통령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이회창이 반통일세력의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측면을 예의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투쟁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연관시켜 그 한고리로 삼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조선일보투쟁은 반통일모략지를 타격하는 투쟁이며 반통일세력의 선전도구를 무력화시키는 투쟁이라는 중요한 의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통일세력들의 법률적, 이데올로기적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위헌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철폐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준비기의 모든 투쟁이 그러하듯이 내외 반통일세력과의 대중투쟁,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안당국과 반통일세력에게 일체의 빌미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한총련의 이적규정철폐문제와 대중성획득의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며 한총련합법화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투쟁이 결국 6.15공동선언실현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총련합법화를 결사반대하는 세력, 국가보안법철폐를 극력저지하는 세력,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응당 선봉이 되고 주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맡은 바 단위를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에서 선봉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청년학생운동가 김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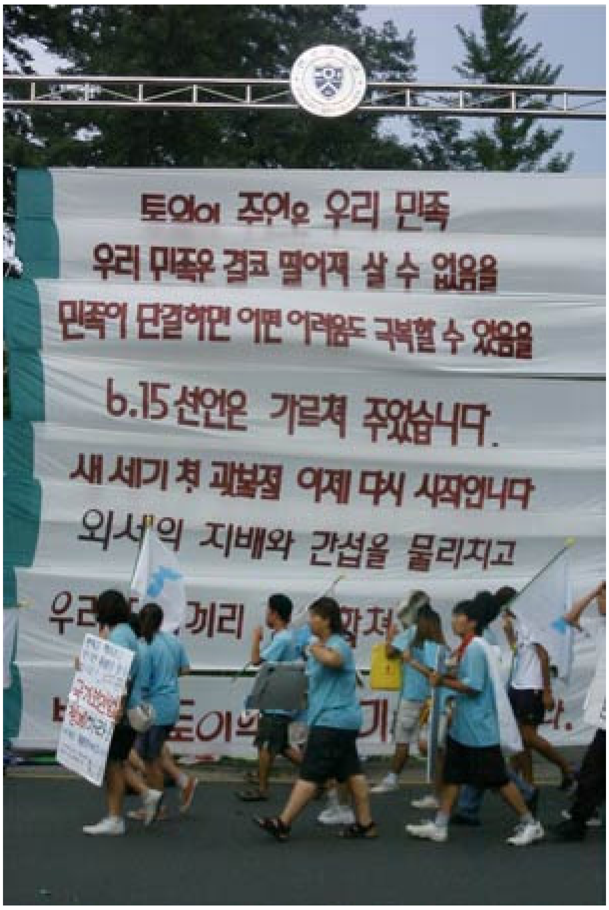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서온 학생운동

구국의 소리 8월 8~10일

1

투쟁의 길에는 기쁨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못잊을 추억도 많습니다.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맞아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들속에서 통일기운이 한껏 높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열혈학우들은 상반기 학생운동을 되돌아보며 심장으로 외칩니다. ≪우리 학생운동은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서왔다고.≫

네,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서온 학생운동≫ 이시간 방송에 임기수, 임현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인양 날씨도 유달리 뜨거운 이 여름, 상반기 학생운동을 긍지높게 돌이켜보는 청년학생들의 가슴도 끝없이 부풀어오르는 여름이죠. 세월은 유수와 같다지만 새해를 맞고 민족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던 때가 어제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되는 8월을 맞으면서 우리 청년학생들의 가슴속에서 끝없이 분출된 강렬한 지향은 과연 무엇이였겠습니까. 우리 청년학생들의 그날의 심정, 서울대 강모학생의 신년소감 떠올려보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죠. 양정아씨 소개해드립니다.

신정의 첫아침, 21세기의 첫아침이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새해의 첫일과는 이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생각으로 시작된다. 정말이지 이 해에 우리는 무엇을 할까. 눈송이에 실려오는 감동의 분출속에 감회한다.

지난해 6월 그렇듯 온겨레와 인류의 심장을 끓게 했던 남북정상회담,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영상을 TV화면으로 뵈오며 통일에 대한 확신을 했고 평양바람에 설레이던 그때 6.15공동선언을 맞으며 한반도에 굽이치는 화해와 단합의 꽃물결.

깊어지는 생각속에 솟구쳐오르는 분노도 있다. 주한미군영구주둔을 강조하면서 북침을 위한 전력증강, 전쟁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미제, 6.15공동선언이행을 사사건건 시비하며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고 있는 극우익보수세력들, 미국과 사대매국무리들의 방해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통일운동은 엄중한 도전에 놓여 있다.

지난해 한반도에 펼쳐졌던 감동깊은 화폭들은 높아가는 통일열기속에 펼쳐졌던 한순간의 꿈일수 없다.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2000년 한반도에 펼쳐졌던 화해와 단합의 물결이 통일의 기슭까지 가닿게 해야한다. 그 선봉에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다. 이것이 이해에 우리 열혈학우들앞에 나서는 선차적 과제이라 생각한다.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서려는 지향이 그렇듯 강렬했기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2001년 승리자의 기세로 자주로운 새세기의 진격로를 개척하자는 구호 드높이 투쟁호소문을 발표하고 정초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상반년기간에 진행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투쟁일지를 보면 이땅의 열혈학우들이 얼마나 불사신의 의지를 안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싸워왔는가를 잘알수 있습니다.

1월 10일 2001년 한총련반미투쟁선포식에 즈음한 투쟁호소문발표.

1월 26일 공격용헬기를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 국방부의 반민족적인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발표.

서총련소속 청년학생들 국가보안법철폐시민연대 회원들과 함께 2월 3일 오후 서울명동성당앞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진행, 한총련, 범민련 등 통일운동을 주도해온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철회할 것을 요구.

2월 4일 제9기 한총련임시의장 이용헌씨 올해 한총련의 활동방향발표,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만들어내야한다.≫

2월 19일 범민련남측본부와 한총련중앙위원들 시국선언발표, ≪6.15공동선언역행하는 보안법을 완전철폐하라≫.

3월 15일 한총련 등 30여개 재야투쟁단체로 구성된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결성.

3월 22일 한총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규탄해 성명발표

4월 5일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해내외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 남측대회진행.

4월 6일 파쇼당국의 탄압을 분쇄하고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 개최.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30일 반미구국단식단 투쟁전개, 모든 국민은 반미항전에 총궐기하자.

5월 25일 한총련소속 반미선봉대 성원들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진행.

6월 3일 9기 한총련출범식진행, 40여개 학생시민단체들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범국민대회진행.

영용히 굽이친 대하와도 같은 청년학생들의 그 줄기찬 투쟁의 나날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시대와 역사앞에 떳떳한 자욱을 새겨온 우리 청년학생들은 6월에 들어갔습니다.

미제의 6.25북침전쟁도발에 대한 기억속에
아프게 새겨진 6월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겨레의 마음속에
민족자주통일희망의 달로 새겨진 6월

잊을수 없다
분단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아픔을 치유할 통일의 명약
6.15공동선언이 탄생한 달이어서
삼천리를 비추는 통일의 태양을 우러러
한반도가 진동하고 세계가 격동한 달이어서

언젠가 알것 같다
그 6월 단풍든 가을도 눈오는 겨울에도
투쟁의 먼길에 비치어 들어서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가슴속에 뜨겁게 뜨겁게 새겨지던 6월

흐르는 날과 달속에 또다시 찾아온 6월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보며 더욱 깊어지는 생각
기어이 관철하리라
6.15공동선언 그속에 조국의 통일이 있고
그 속에 민족의 번영이 있기에

언제나 마음속에 6월을 안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달려온 우리 청년학생들이기에 민주광장에 주체사상탑모형탑을 세우고 대학가들에 인공기를 걸며 6.15공동선언1돌을 뜻깊게 기념했구요,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에도 참석하여 그 위상을 과시했던 거죠. 상반년학생운동의 자랑창 노정을 되돌아보며 6.15공동선언관철에 힘차게 떨쳐 일어설 우리 청년학생들의 불타는 결의 노래되어 경향각지에 울려 퍼집니다.

2

상반년기간 우리 학생운동이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의 길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창조하여 올수 있은 그 비결에 대해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나눠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언제나 그러했지만 특히 올해 상반기처럼 학생운동이 각계 민중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속에 힘차게 전개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정원 : 여러가지로 분석할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 청년학생들의 통일지향이 새세기와 더불어 더욱 강렬해진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새세기에 들어선 오늘 분단민족은 행성에 오직 우리 민족뿐 아닙니까. 반세기의 장구한 세월에 걸친 우리 민족의 불행과 고통의 역사를 더이상 연장할수 없다는 자각, 새세기에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도 통일은 기필코 성취해야한다는 자각, 민족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칠천만겨레가 하나의 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조국통일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때 실현할수 있다는 자각, 이같은 자각들이 우리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6.15공동선언관철에 열과 성을 다바쳐가도록 한 것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 얘기를 들으니 한총련이 6월 15일에 발표한 성명의 한 귀절이 떠오르네요.
≪한총련이 조국과 민족의 부름앞에 주저없이 나설수 있은 것은 심장에 아로새긴 6.15남북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이며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절대 물러설수 없다는 피끓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이죠.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 것도 상반기 학생운동이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윤정원 : 네, 그렇죠. 조직이 없는 투쟁이란 있을수 없고 조직화를 실현하지 못한 운동은 투쟁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상반기 학생운동의 전과정은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학생운동단체의 조직력과 전투력을 끝없이 강화해온 나날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탄압말살하려는 파쇼당국의 책동은 얼마나 악랄하게 자행됐어요. 수많은 학생들은 한총련 간부이거나 한총련의 활동을 크게 했다고 구속처형됐고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도, 출범식도 파쇼당국의 탄압이 노골화되는 속에 진행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학생운동조직을 말살할 수 없었거든요. 상반기간 범청학련남측본부와 한총련과 학생운동단체의 명의로 된 성명들과 시국선언, 기자회견문들이 얼마나 많이 발표됐습니까. 이같은 모든 것은 학생들을 투쟁에로 고무추동하는 한편 조직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집시키는 공간으로 됐고 학우들로 하여금 조직의 생활력과 전투력을 절감할수 있게 하는 계기로도 됐습니다. 조직의 주위에 굳게 결집된 그 단합의 힘에 있어 청년학생은 온갖 탄압을 박차고 한총련대의원대회와 연이은 출범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수 있었던거죠.
그래서 상반기 학생운동이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게 된 원인을 분석을 할 때 각계층 운동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하고 공동투쟁을 전개한 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면 누구와도 손잡을 것이다≫ 이런 지향을 안고 각계층운동단체들과 연대연합을 강화해온 청년학생들이기에 각계 민중들 모두가 학생운동조직들을 지지성원하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벌이는 열혈청춘들의 투쟁에도 동참하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던 거죠.
사회자 : 학생운동이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비결에 대한 얘기, 청년학생들의 투쟁에도 커다란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한총련은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은 어떤 도전속에서도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내릴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6.15선언이행에 온 겨레가 떨쳐 일어나 전민족의 대단결로 기어이 올해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고.

상반기 학생운동을 빛나게 장식한 승리자의 자긍심을 안고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드높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의지 구호가 되어 울려퍼집니다.

청년학생들은 조국통일의 선봉대이자 21세기의 주역이다.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청년학생선봉투쟁으로 범국민반미항전 일으키자!
6.15공동선언역행하는 보안법 청년학생선봉에 서서 짓부수자!

≪6.15공동선언관철에 앞장서온 학생운동≫,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청춘을 빛내가는 청년학생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시간 여기서 마감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그 의미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그 의미에 관해서 애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위대한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에 관해 개괄해봤으면 합니다.
윤정원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초청에 의해 지난달 26일부터 러시아에 체류하셨죠. 이기간 푸틴대통령과의 공식상봉과 비공식상봉이 각각 1차, 확대회담과 단독회담이 각각 1차, 그리고 영도자님을 환영해 푸틴대통령이 차린 연회가 있었어요.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4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시고 헌화하셨구요, 5일에는 무명전사묘를 찾으셔서 헌화하셨구요, 그리고 4일 영도자님께서는 푸틴대통령과 함께 크렘린궁에서 역사적인 조러 모스크바선언조인식에 참가하셔서 선언문에 사인하셨지요. 그리고 5일에는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 있는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센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센터를 참관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크렘린에 있는 역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셨구요. 이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위해 크렘린궁에는 유명한 악단의 공연이 있었어요.
사회자 :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러시아방문 의미는 이북의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고 21세기의 자주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밝은 전망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으로 된다고 보는데요.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는 우선 조러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조러친선관계는 참으로 깊은 뿌리를 갖고 있죠. 조국광복과 함께 이북에 민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된 이후 당시 사회주의국가였던 소련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분야에 걸쳐 친선협조관계가 부단히 발전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된후 조러간의 관계는 우여곡절의 ******겪지않으면 안되었어요. 물론 그것은 조러관계발전을 원치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러시아국내 투항변절자들의 책동때문이었는데요, 그러던게 지난해 여름에 있은 푸틴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지난해 2월에 조인된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면서 두나라간의 친선관계는 다시 활기를 띠고 발전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번에 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고 역사적인 조러공동선언을 채택하심으로써 조러간의 친선관계는 더욱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회자 : 조러친선관계발전에서 4일에 발표된 조러공동선언도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네, 공동선언에는 조러친선상호관계의 원칙과 발전방향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정치와 대화관계, 쌍무적인 경제협조와 무역 등을 발전시키는 문제를 비롯해 이북과 러시아 두나라 관계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조러간의 친선관계가 새로운 수준에서 **적으로 발전할 **를 마련한 것으로해서 참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리고 말이죠, 조러공동선언에서는 새 세기에 세계적 안정을 이룩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히 명시했을 뿐 아니라 현 국제사회의 초미의 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대한 원칙적입장을 밝힘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전세계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역사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었는데요. 이것 또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이번 러시아방문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한데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푸틴대통령과의 회담들에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당위성과 그것이 21세기의 통일이정표가 된다는데 대해 강조하시고 그에 대한 러시아측의 지지를 이끌어 내셨는데요. 조러공동선언에서도 명백히 밝힌것처럼 러시아측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며 남북대화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과정들에서 건설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할 용의가 있다는 걸 확언했죠. 이것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이행함으로써 나라를 하루빨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도자님께서는 주한미군철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물론 세인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가지게 되었고 그 철수투쟁을 국제적차원에서 더욱 확대강화할수 있게 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사회자 : 저는 이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이 미제를 축으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열강들에게 된 타격을 주고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민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는데 이번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가 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국주의자들은,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은 국제적인 냉전체제 붕괴후 더욱 기고만장해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광분하며 횡포를 부리고 있죠. 부시행정부는 미국이 힘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가로막으면서 저들은 무력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한 무장간섭과 침략을 통해 ****** 군장비들을 더욱 증강하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을 구실로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시어 새 세기에 세계적인 안정과 국제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는 원칙과 방도에 대해서 천명하시고 72년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의 유효성에 대해 밝히심으로써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반대로 세계 평화애호민중들,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봅니다. 이 또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이 갖는 의미가 있는거죠.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건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서 영도자님의 높으신 권위와 위상이 크게 과시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세인들이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김정일**영도자님은 세계 변혁운동의 탁월한 영수이시고 21세기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번 러시아방문을 통해 세계 변혁운동의 탁월한 영수, 21세기 태양으로서 지니신 높은 권위와 위상을 세상에 크게 과시하셨어요. 지금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그분의 위대함을 더욱 절감하게 된 세인들은 앞을 다투어 그분을 높이 칭송하고 있죠. 러시아의 저명한 정치인, 학계, 언론인들은 물론이고 서방나라 사회주의자들도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현세기 탁월한 영수로, 세계를 이끌 유일한 **로, 21세기 위대한 태양이시라며 우러러 높이 칭송하고 있는건 그걸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우리 민중은 세인들이 그처럼 높이 우러러 칭송하는 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를 안고 그분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날로 확산되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

구국의 소리 8월 7~8일



지금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이 경향각지에서 확산되고 조선일보는 파산직전의 운명에 서있는데요. 조선일보의 죄악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조국통일을 방해하는데 있다 할겁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가장 *****그럼 오늘의 연단 이번순서에는 ≪날로 확산되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해 윤정원씨 모시고 살펴보기로 하죠.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경향각지의 각계 민중들 속에선 말이죠, 극우반공보수언론의 대표지인 조선일보에 대한 구독거부운동이 유화불길 마냥 타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한 걸 가지고 얘기 나눴으면 하는데요. 먼저 이 운동이 왜 각계각층 속에서 날이 감에 따라서 확산되고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조선일보는 지난 일제시기에 창간된 신문으로써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부수를 놓고 볼때도 첫 순위에 드는 거대언론매체죠. 이런 신문사가 전민중적인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건 상당한 원인이 있는거죠. 말하자면 조선일보에 대한 민중의 외면이 뿌리에 깊은 반감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죠. 조선일보의 방우영일가는 외세의 찬미와 **선전, 반통일행적으로 얼룩진 죄악의 역사라고 말할수 있죠.

일제치하시기에 조선일보는 지면에 천황폐하만세를 공공연히 게재했고 독립운동가들의 의로운 혈전을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일로 매도했습니다. 광복후엔 정권에 들어앉은 친미역대독재자들을 영웅으로 찬미하면서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민중들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했어요.

특히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후 급격히 높아가는 민족의 통일열기에 질겁한 조선일보는 객관보도라는 언론의 사명마저 완전히 벗어버리고 반통일적인 언론, 극우보수지로써의 추악한 몰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놨죠.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조선일보와 그 자매지들을 보노라면 그들이 이북과 이땅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지 잘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각지의 각계 민중들 속에선 조선일보를 더이상 용서할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았고 마침내 조선일보반대운동의 전민중적 봉화가 타오르게 된거예요. 조선일보에 대한 민중의 적의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은 이 운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예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자 : 지금 조선일보반대운동을 가장 활발히 벌이고 있는건 민주노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운동에 참가한 시기는 지난 6월 25일인데요. 당시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은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투쟁을 악의에 찬 왜곡, 허위, 편파보도로 매도한 조선일보에 대해 구독중지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했죠. 다음날인 6월 26일엔 조합원 100여명이 조선일보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구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산하 6개 지부에 구독중지통보서를 조선일보사측에 전달을 했어요.

7월 16일에는 사무금융노조의 조선일보구독거부선언이 있었고 19일에는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20일에는 택시노조가 조선일보반대선언을 했죠.

민주노총에서는 조합원과 친지는 물론 시민들을 상대로 조선일보구독거부를 호소하고 또 산하지부에 대한 조선일보기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들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기사에 문제가 있을때엔 곧바로 언론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자 : 조국통일과 사회의 민주화, 생존권을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주력군의 역할을 하는 이땅의 천만노동자들이 극우의 나팔수 조선일보를 반대해 적극적으로 투쟁하는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불길은 이 운동을 처음으로 일으킨 지식인들과 대학가에서도 기세충천하게 타번진다고 봐지는데요.
윤정원 : 정의와 진리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건 지식인들의 특징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그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조선일보의 사이비적 행태를 용납할수 없는거죠.

안티조선의 부활을 남먼저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주요 3차에 걸치는 조선일보거부지식인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지난 3월 5일 3차 지식인선언문을 발표한 서울대 김진균교수는 조선일보가 남북관계에 대한 음미와 왜곡 등 시대착오적인 보도를 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대학가에서도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126개의 대학신문사의 대학생기자들이 망라되어 있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은 지난 4월 6일에 조선일보반대와 언론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기서 그들은 현시기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비뚤어진 반쪽짜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며 민족자주와 민족화해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 사명이라면서 앞으로 조선일보평생구독거부 등을 통해 조선일보의 죄악을 공개하는 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참가한 대학생기자들을 포함해 대학생 6천명이 조선일보를 평생 구독하지 않겠다고 서명했어요. 지난해 조선일보사 주최 고등학생 논술대회에서 대상을 받고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거부한 서울대 1학년생인 한윤형은 ≪조선일보는 공국에 진보인사가 있어선 안된다며 빨갱이 사냥을 하고 있다, 이런 신문이 1등행세를 하는 사회에서 산다는건 너무 삭막하다≫고 말했어요.

조선일보반대운동이 대학가에서 세차게 일어남에 따라 이 신문사에 들어가려는 입사준비생들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조





선일보기자 모집지원생은 620여명으로써 비슷한 기간 동아일보 지원자 1,500명보다 절반도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대학가의 투쟁은 전역의 대학들에서 더욱 세차게 벌어질 결로 전망됩니다.

사회자 : 지금 각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선일보반대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이랄까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이 비단 노동자, 학생들뿐 아니라 각계각층 시민들도 망라돼 있다는 것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조선일보반대운동은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에 한정된 게 아니거든요.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조직적인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발전되는 것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그 사례가 바로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의 결성인데 여기엔 각이한 시민사회단체가 56개나 망라돼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라는 안티조선 인터넷사이트는 지난해 1월에 개설된 이래 지금까지 153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안티조선모임으로써 ≪월간 인물과 사상 독자모임≫은 전국 13개곳에 지역모임을 가지고 4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니예요. ≪조선일보바로보기 옥천시민모임≫엔 지역내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 전교조지회 등 다양한 성향의 단체가 가입하고 시의회 의원들까지 참여한 시민단체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계층을 망라하고 있는 이웃군인 영동군에서도 조직돼 있다구요.

이런 추이는 법조계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계에서까지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7월 3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일보가 국세청세무조사결과 거액의 탈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언론개혁과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지난 10일 서울의 *****에서****까지 이 운동이 벌였습니다. 이 운동이 대중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사회자 : 고려대의 최장집교수는 얼마전에 ≪우리 사회에서 기득구조를 가장 전투적으로 유지하고자하는 이데올로기부문을 극우



라고할때 조선일보는 그 중심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와 양심의 대변자로써의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채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악선전을 구태의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마땅히 각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을 절절히 염원하는 이 땅의 애국민중이 있는한 극우보수지로써의 조선일보가 발붙일 곳은 그 어디도 없을 겁니다.

그럼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죠.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관계개선은 이북의 일관한 입장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의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은 우리 민중의 크나큰 감격과 자부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각국 메스컴이 이따르타스의 장군님인터뷰요지를 다투어 싣고 있습니다. 작년 6.15때 느꼈던 장군님의 빼어난 이상이 그냥 그대로 살아숨쉬는 저작이라는 게 중론인데요. 그분의 예지, 불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원칙성과 확고부동한 자주적입장, 크나큰 담력, 넓디넓은 아량, 명백한 논리, 가슴이 후더분해지면서 힘이 솟구치는 말씀들입니다. 장군님에 대한 더욱 뜨거워진 존경과 흠모가 우리 민중의 가슴에 소용돌이치며 높아지죠. 천재적사상이론가, 전략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중에서 한 대목을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김현규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주체 90 (2001)년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작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간에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관계개선은 이북의 일관한 입장이라는데 대해 밝혀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 **≪우리는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관계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이북은 자주권을 상호존중하는 기초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에는 200여개를 헤아리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와 덜 발전된 나라, 역사적 전통이 오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나라마다의 각이한 정치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나라와 민중은 자기에게 걸맞는 사상과 이념, 정치제도를 선택할 자유를 가지며 누구도 그에 대해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국가관계를 수립하려면 매개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주권존중의 원칙에 선다면 세계 모든 나라와 민중은 사상과 이념, 정치제도에 관계없이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낼수 있으며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루어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들사이에 존재한 대결과 분쟁들은 다른 나라와 민중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데로부터 산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 유린하는건 하나의 큰 죄악으로 됩니다. 더욱이 자주와 평화, 진보의 길로 나가는 것이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는 오늘, 냉전의 사고방식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자주권의 존중은 건전한 국가관계발전의 기초이며 원칙입니다. 오늘 이북에 있어서 자주권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짓부수고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 이북은 세상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북은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면 그 어떤 나라들과도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설사 지난날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도 오늘날 이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린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국제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이북의 일관한 입장입니다.

이처럼 이북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는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민중의 지향과 염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오늘 이북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외적권위와 영향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해와 올들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북과의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관계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을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와 협상이 진행된것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시기 유럽의 자본주의나라들은 이북의 정치제도와 사상을 문제로 삼아 이북과의 관계수립을 외면하거나 반대해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에 합류까지 해왔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오늘에 와서 이북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건 자주권을 존중하고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관계개선을 확대해 나가려는 이북의 대외정책의 커다란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권존중에 기초한 국제관계발전의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이북의 입장과 태도는 국제무대에서 이북의 발언권과 위상을 더욱 높이고 건전한 국제관계의 수립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주체 90(2001)년 7월 24일,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서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관계개선에 대한 이북의 일관한 입장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은 일찍부터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성공리에 이끌어주시는 사상이론의 거장이시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사상에서 제일이시고 영도와 덕망에서 으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우리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긍지와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이땅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화되고 민주화된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걸 다바쳐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 · 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김대중정권의 화해 · 협력정책

조미관계의 경색국면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 한호석
(강조 - 통일여명 편집국)

현 시기 조 · 미 관계의 특징은 부시정권이 페리 프로세스의 추진 일정을 보류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먼저 챙기려는 데서 생겨난 경색국면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조 · 미 관계에서 경색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가장 커다란 불안감을 느낀 쪽은 김대중정권이다. 김대중정권은 2002년의 대선일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므로 정국이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들어서기 이전인 올해 안에 남(한국) 대중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비상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책략은 화해 · 협력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자본주의경제가 자본축적의 위기에 빠지면서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남(한국) 경제가 그 전처럼 잘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파탄으로 잃어버리고 있는 대중의 지지율을 화해 · 협력정책으로 만회해보겠다는 것이 김대중정권의 전략구상이다. 그런데 부시정권이 등장하면서 조 · 미 관계에서 경색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하자 대선일정을 앞두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는 김대중정권은 매우 불안하게 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기의 심복인 임동원국정원장을 서둘러 워싱턴에 파견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자기의 심복을 통하여 북(조선) 정책과 관련한 부시정권의 견해를 듣는 한편, 조 · 미 관계의 경색국면 속에서 화해 · 협력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국면을 앞두고 있는 올해에 대북 전력공급사업 추진, 국가보안법 부분개정, 남북 교통망 복원, 이산가족 상봉사업, 남북 장관급(상급) 회담 개최 등을 밀고 나감으로써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을 원만히 성사시키고 그로써 남북관계를 최고조의 분위기로 올려놓고 재집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부시정권이 쳐놓은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임동원국정원장을 만났던 부시정권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올해 김대중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화해 · 협력사업의 일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이다. 부시정권은 자기들이 조 · 미 정치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남북의 정치협상이 먼저 시작되어 한(조선)반도의 정세변화를 주도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급해진 김대중대통령은 부시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2001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김대중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함으로써 한 · 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한편, 부시정권이 조 · 미 관계에서 경색국면을 조성하자 북(조선)도 그에 대한 대응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북(조선)은 경색국면을 조성하려는 워싱턴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남북의 장관급(상급) 회담을 추진하기로 한 일정을 일단 보류하는 비상조치를 취하였다. 조 · 미 관계가 경색국면에 묶여있는 조건에서 남북의 장관급(상급)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 · 미 관계가 경색국면으로 들어서고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사업 일정이 보류되자 남(한국)의 반통일세력은 마침내 공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더욱 날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들은 지금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체제를 유지 · 보존하고 있으며,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으므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느니, 북(조선)은 변하지 않았는데 퍼주고만 있다느니 하는 따위의 궤변을 떠벌이면서 차츰 몰락해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잠시라도 붙잡아보려고 날뛰고 있다. 그러나 반통일세력은 조 · 미 사이에서 힘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화해와 협력, 자주와 통일을 향하여 흐르고 있는 것을 되돌리거나 멈춰 세울 힘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일시적인 경색국면을 틈타 반역의 음모를 꾀하고 있는 반통일세력은 결국 발붙일 자리를 찾지 못하고 몰락할 것이다.





보배손

구국의 소리 8월 4~6일
제주의 양민철씨

나처럼 흙만지는 그 손
두엄이랑 주무르는 그 손을
글쎄 김일성주석님께서 잡아주셨단 말이죠

이슬젖은 논두렁길 헤치시며
찾아 오신것만도 황송하온데
투박한 그 손 꼭 잡으시고
글쎄 보배손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놀라워요, 놀라워!
주석과 농민은 하늘과 땅차이
어쩌면 그럴수가

하긴 주석님은 대대로 농사짓는 만경대농가에서 탄생하셨다죠
민중을 선생으로 하늘처럼 여기셨다죠
부지런한 실농군이셨고 현명한 농학박사셨다죠
생신날조차 온종일 파종한 들판에 나가계시고
심지어는 저택의 정원까지도 시험포전으로 꾸리셨다죠

아! 주석님
우리 농꾼들을 너무너무 잘아시는
김일성주석님
생전에 단 한번만이라도 만나뵈었더라면

여보세요, 이북의 농민대표
주석님 잡아주신 보배손
나도 좀 잡아봅시다

땅처럼 푸근한 그분의 체취
이제라도 느껴보게
낟알내음처럼 그윽한 그분의 민중사랑
그 향기에 젖어보게

그리고 우리 굳게 잡은 이 손으로
우리끼리 통일의 문 엽시다
아- 그러면 김일성주석님
농민의 보배손이 정말 큰일을 했다고 무척 기뻐하실테죠
주석님과 꼭같으신 김정일영수님
보배손이 이젠 통일손이 됐다고 무척 대견해 하실테죠

조국통일3대헌장을 각국 청년학생조직들이 지지

(평양 주체 89년 8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국통일3대헌장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에 6월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된 세계민주청년련맹 조정리사회 회의와 제15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제1차 국제준비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와 국제 및지역 청년학생조직들이 참가하였다.

전인디아청년련맹 총서기 쏘니 텡가몸이 230만명을 대표하여, 인디아전국청년대회 대표인 국회의원 개크 와드가 1,500만명을 대표하여, 마로끄학생동맹 위원장 아브들라위 하캄이 25만 5,000명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또한 메히꼬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 자신또 꼬로나 에스삐노싸, 이스라엘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 가자위 가님, 브라질공산당 청년대표 브르노 바르보싸, 서부사하라뽈리싸리오청년동맹 대표 모함메드 즈루그, 수단청년동맹 대표 타리크하싼, 나미비아청년동맹대표 힌다 마우렌, 꼴롬비아공산주의청년 총서기파딜라 닉쏜, 브라질 10월 8일혁명 청년대표 안또니오 카씨아, 쟈메이카인민국가당청년조직 총서기 로웨 말론, 로씨야련방공산주의청년동맹 1비서 꼰스딴찐 쥬꼬브, 자유도이췰란드청년 집행위원회 성원 구나르로렌즈, 도이췰란드사회주의로동청년 집행위원회 성원 드제와스 안께, 카나다공산당 청년대표 그리고 리 두베키, 네팔학생조직총협회 집행서기국 성원 바마두르 구룽얍이 자기 조직과 성원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다.

한편 세계민주청년련맹, 쁠럭불가담학생청년조직, 범아프리카청년운동, 그리스공산주의청년, 노르웨이공산주의청년동맹, 마로끄, 단마르크, 이라크, 미국, 영국, 이딸리아의 청년학생조직들도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

주체사상총서 제 5권 조국통일론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과 그의 전민족적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절박한 과업이다.

>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7권, p.280)

조국통일은 온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와 한결같은 숙망을 실현하는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계급, 계층에게만 관계되는 사업이 아니며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하는 거족적 사업으로서 오직 전체 조선인민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우선 전국적 판도에서 통일세력의 조직화를 실현하여 그 위력을 백방으로 확대 강화할 수 있게 한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공화국북반부의 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 북남의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묶어세워 강력한 정치적 연합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광범한 인민대중이 하나의 조직된 정치적 역량으로 굳게 단합되어야만 역량관계를 통일위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으며 통일도상의 모든 장애와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해나갈 수 있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또한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과 민족분열의 고착화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영구분열이냐 아니면 통일이냐 하는 엄중한 난국에 부딪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서 민족의 영구분열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는 담보는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한다.

북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은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에 굳게 결속될 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분산성과 비조직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각계각층 인민들의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단결할 수 있게 하는 기초로 된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전국적인 광범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나가며 북과 남이 서로 신뢰하고 공통점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역량과 통일을 지지하는 남조선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연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주체 90, 8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4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과 상봉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를 공식방문하시기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푸틴대통령이 크렘린대궁전에서 따뜻이 영접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푸틴대통령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과 푸틴대통령사이의 회담이 4일 크레믈린대궁전에서 있었습니다.

회담에서는 두나라 정세를 상호통보했으며 두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4일 오전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4일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방문하셨습니다.

조러 모스크바선언 조인식이 4일 크렘린대궁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과 함께 조인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와 푸틴대통령각하께서 선언문에 각각 수표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모스크바선언이 4일 발표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환영하여 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이 4일 저녁, 크렘린대궁전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습니다.

대경연합을 비롯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3일 대구여성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한총련 등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김만제정책위의장의 사회주의발언으로 연일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의 당사앞 항의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소속회원 50여명은 지난 2일 한나라당 여의도당사를 방문해 김만제의 ≪전교조는 사회주의적집단≫발언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만제의장은 97년 포철회장시절 삼미특수강인수과정에 587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악덕회장출신이라며 반노동자적이고 재벌과 사용주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김의장의 직위를 박탈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박관용위원장이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주장했다며 민주노총은 정권의 노조탄압에 맞서 정권퇴진운동까지 해왔는데 무슨 근거로 정권의 홍위병이라고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언론개혁을 위한 종교인 1,000인 선언운동준비위원회소속 회원 10여명도 이날 오후 한나라당을 항의방문해 비리언론사의 거듭남을 촉구하는 종교인 1,000인 선언을 정부외곽단체로 묘사한 한나라당의 행위에 분노한다며 이회창은 종교인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는 내용의 종교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항의방문단가운데 10여명이 이총재와의 면담을 요구해 김문수사무1부총장, 김형춘대외협력위원장이 이들을 맞이했으나 전교조측은 총재나 부총재급 인사와 얘기하겠다며 면담을 거부하고 당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당사에 대한 잇따른 항의방문과 항의집회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집단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적의지의 분출이라 하겠습니다.

주체 90, 8월 6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5일 모스크바시와 모스크바주에 있는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생산센터와 중앙우주비행조종센터를 참관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5일 크렘린에 있는 역사문화유적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지난 3일 서울의 **김정일**장군저작연구회 회원 차강만군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 대한 연구모임에서 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최근 각계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총재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사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한나라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이회창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다만 한나라당이 사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관변단체, 정부의 홍위병, 사회주의집단이라고 매도한데 분노한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일 한나라당사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여 이회창의 공개사과와 관련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회원 50여명은 지난 2일 한나라당사를 항의방문해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전교조는 사회주의적 집단이라고 발언한데 대해 공개질의서를 내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만제의장은 97년 포철회장시절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 587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악덕회장출신이라며 반노동자적이고 재벌과 사용주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김의장의 직위를 박탈할 용의는 없는가고 한나라당에 따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 박관용위원장이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에 맞서 정권퇴진운동까지 펴왔는데 무슨 근거로 정권의 홍위병이라고 말하는냐고 물었습니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을 위한 천인선언준비위원회 대표 12명이 2일낮 한나라당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비리언론사의 거듭남을 촉구하는 종교인천인선언을 정부의 외곽단체로 매도한 한나라당의 행위에 분노한다며 이회창은 종교인과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전교조는 전교조를 사회주의집단이라고 매도한 한나라당 김만제의장의 발언과 관련해 2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김만제의 사퇴와 이회창의 공개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전교조를 사회주의집단이라고 매도한 김만제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견으로 넘길수 없는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공식입장과 공개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교조 항의방문단 가운데 10여명은 이회창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당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대표단도 이날 한나라당사를 찾아 언론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정부의 홍위병이라고 주장한 박관용의 발언취소와 그의 공식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이회창과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규탄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회창일족의 반민족적 행적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다가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6.15남북공동선언자체를 반대하면서 남북대결을 고취할뿐 아니라 사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까지 매도하는 반민족적반국민적 죄악을 일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계에서 민족반역자의 후손인 이회창을 즉각 정계에서 제거해야한다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모임은 모임에서 지난 ***** 이회창이 광복전 일제검찰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가탄압에 앞장서온 친일주구의 후예라는 사실에 온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런 민족반역자의 아들인 이회창이 어떻게 오늘날 정치인까지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다누릴수 있단 말인가. 지금껏 이회창이 색깔론을 주장하면서 사회분열을 꾀하고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 등을 한사코 반대해나선 저의가 무엇인지 대번에 명명백백해졌다고 본다.

이회창이 입만 벌리면 국보법철폐는 시기상조라니니 주한미군은 영구주둔해야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칠천만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망발만을 일삼고 있는 것은 그가 제 애비의 본을 따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고 민족분열을 영구화해 이땅을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다. 정말 이리가 양으로 될수 없듯이 일제시대때부터 애국자탄압에서 악명을 떨쳤던 제 애비의 기질을 그대로 빼어닮은 이회창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이땅을 미국의 농락물로 만들려는 민족반역자 이회창은 지체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범청학련남측본부 부의장 겸 대변인인 황선씨를 구속기소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문화예술분과위원회의 주최로 재미동포예술인들의 6.15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한 음악회가 7월 21일 미국 뉴욕 맨하탄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8월 7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위해 크렘린 대통령악단의 공연이 5일 저녁 크렘린 대궁전 블리디미르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신 소식에 접한 각계각층 민중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대전충남지역에 보수와 진보단체가 공동으로 통일운동을 펼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통일분자 이회창이 러시아가 조로모스크바선언에서 이북의 주한미군철수주장에 이해를 표시한 것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있는데 대해 각계가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는 당당한 주권국가들의 외교문서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환영을 받고 있는 조로모스크바선언의 내용을 시비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회창이 제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온 국민과 국제사회의 일치한 요구인 주한미군철수문제와 같은 첨예한 정치적 문제들에 계속 반기를 들고 있는 이회창에게 동조하다가는 언제 어떤 벼락을 맞을지 불안스럽기만 하다면서 한시바삐 이회창과 결별하고 한나라당을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화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회원로들의 성명을 세무조사에 대한 반대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왜곡보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 광주전남본부는 최근의 잇따른 탈세와 사주비리 옹호 등 신문관련 파문과 관련해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거부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6일 시민운동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신문개혁국민행동 광주전남본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언론사에 대한 선심성예산편성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광주전남 시, 군, 구 순회방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조선일보구독중지운동 등 신문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내 10여개 종교, 시민, 노동단체로 구성된 신문개혁국민행동 제주본부는 6일 오전 결성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패한 언론을 개혁하고 족벌신문의 병리재판을 지휘하기 위해 언론개혁대장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9기 한총련지도부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책동을 벌이고 있어 각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쟁과 역사왜곡,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이땅에서 미군기지철수를 요구하는 매향리범국민대책위원회에 연대요청문을 보내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을 방문한 재일본 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김희영부위원장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 소식에 접하고 격동된 심정을 금할수 없다며 영도자님을 민중의 자주위업, 세계평화위업에 위대한 수호자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이 특별뉴스로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체 90, 8월 8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 소식은 오늘 우리 민중을 한없이 격동시키고 있으며 그분에 대한 칭송열기로 더욱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한총련과 범청학련남측본부는 6일 한총련소속 대학생 5명이 미국을 방문해 오는 16일까지 워싱턴 백악관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이 수억원을 들여 생가를 복원한다, 또 자기가 권좌에 앉으면 정치보복을 안하겠다 뭐다하는 등의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대해 국민각계가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회창이 생가복원이다 뭐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분격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예로부터 역적의 가문은 3대를 멸족시키라고 했는데 이회창의 일족은 애비때부터 왜놈들의 수족이 되어 날뛴 역적의 가문이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그는 이런 역적의 집이 아직까지 남아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수치라며 그것을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대표들은 7일낮 연세대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방우영 조선일보사 명예회장과 김병관 동아일보사 전명예회장이 두 대학교 이사장으로 재직중임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스스로 물러가라고 촉구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역사학자 등과 함께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실상을 알리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자칭 경기도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철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이 학교 총학생회는 6일 오전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측이 성의를 갖고 학내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한총련탈퇴를 거부했다는 구실로 제9기 한총련지도부의 대대적인 검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제고통련은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즈음해 미국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항의하는 편지를 2일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대표단은 일본당국의 무례한 입국불허조치로 하여 일본에서 진행되는 과거 일제의 강제연행범죄와 관련한 증언집회에 참가할수 없게 된 것과 관련해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내외신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접하고 그분께 러시아 각계 인사들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소식을 많은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광범위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범위한 러시아인사들은 독창적인 선군영도로 사회주의위업과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영도자님을 위대한 태양으로, 현시대의 걸출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주체 90, 8월 9일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모스크바체류가 끝남에 따라 8일 러시아연방 푸틴대통령과 비공식상봉을 하셨습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8일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8.15광복절을 맞으며 통일운동조직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하 생략)
한총련과 범청학련남측본부소속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와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며 미국 워싱턴 백악관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철수를 극력반대하고 있는 이회창은 하루빨리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내 개혁파를 대표하는 이부영부총재가 신당창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혀 이회창이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부영부총재는 7일오전 KBS뉴스 레이다프로그램에 출연해 현 정치상황에서 완충지대역할을 할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신당창당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부영부총재는 현재 당론에 구애받지 않는 여야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인,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화해와 전진포럼을 만들어 현 정치상황에서의 완충지대역할과 3김시대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부영부총재를 중심으로 신당창당설이

나돌았으나 그가 신당창당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이 신당창당에 나서기로 한것은 반통일세력인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국민들로부터 규탄과 배격을 받게 되자 한나라당으로부터 떨어져나가 개혁성향의 새당을 만들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한나라당은 분당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부대화학무기폐기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철도를 점거한채 항의시위를 벌였습니다.

7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옥상에 있는 육군 **부대 소속 대공포기지에서 20미리미터 발칸 대공포 10발이 발사돼 공중에서 폭발되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같은 사고는 군당국이 백화점 옥상에까지 대공포를 설치하고 전쟁연습을 벌이

주체 90, 8월 10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일본당국이 일본에서 진행되는 과거 일제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피해자들의 증언집회에 참가하려는 이북 대표단의 입국을 가로막은 것과 관련해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항의성명을 발표했습니다.

8월 7일 연세대와 고려대의 총학생회가 조선일보 방우영명예회장과 동아일보 김병관전명예회장의 이사직 사퇴를 촉구한데 이어 8일 전국의 신문방송학과 학생대표들이 조선일보 입사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최모씨는 이회창이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주의타파, 지역감정해소에 대해 곧잘 외워대고 있는데 대해 조소하면서 이는 제놈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깜짝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38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9일 이북을 방문한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위원장, 중국 베이징대학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축하해 러시아모스크바전쟁노병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평화국제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문화 연구협회 위원장, 러시아 군사***러시아 ***비롯한 러시아의 각계인사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해방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불가리아공산당(마르크스주의) 불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벨로루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따르따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요지를 7월 29일과 30일 쿠바의 신문들인 하람마와 흐라바 **에서, 쿠바 델타 라트라 통신, 쿠바 레델데, 프로그래스, 델로포 방송들이 ≪**김정일**영도자님과 푸틴대통령과의 상봉은 평양과 모스크바 사이의 친선관계를 깊게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이북이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등의 제목과 함께 ****실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7월 30일 마다가스까르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8월 11일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하는 신모씨는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통해 절세위인을 모셔야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천리를 가슴 뜨겁게 새기게 된다면서 높이 칭송하였습니다.

국제문제연구소의 최모연구원이 지난 8일 동료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세계 자주화위업의 탁월한 영수이시라고 높이 칭송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최근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10일 용산미군기지의 기름오염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면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총련소속 서총련 통일대행진단 50여명이 9일낮 1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청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30여분간 반일시위를 벌였습니다.

한국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10일 일본 중의원회관앞 도로에서 고이즈미총리의 야스쿠니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제거하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재야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이회창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론을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은 반통일분자로써의 그의 정체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이다. 이건 지난 50여년간의 분단사가 잘 말해주고 있다. 6.15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이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바로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이회창은 기회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의 망상이 아닐수 없다. 말하자면 북을 흡수통합하는 방법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 궤변이다. 북을 어째보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는 행위이다. 결국 이회창이 떠드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론이란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땅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전쟁론이다.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민족의 재난을 위해 혈안인 이회창은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이회창과 같은 전쟁미치광이는 지체없이 제거해야한다.≫

민주당은 근로자의 주5일근무제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난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지하수오염과 관련해 용산인근의 22개곳에 관정을 뚫고 분석한 결과 최소한 2곳 이상에서 휘발유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10일 이북을 방문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이사회 강순호의장은 비행장에서 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 회견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북을 방문한 우크라이나 고려인통일연합회 조영술위원장이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7일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이사회 의장인 카자흐스탄 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 원동고려인통일연합회 대표단 등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국해방전쟁승리 48돌에 즈음해 이집트 미스르 아타치상부기장과 이집트 나세르아랍민주당서기장,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에서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푸틴대통령과 비공식상봉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 이따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에 대한 강연토론회가 7월 31일 페루 사회당, 불가리아 공산당, 인도, 스위스 연구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인포뱅크

(www.dprkoea.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홈페이지





